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 책임연구원 : 조윤오(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 공동연구원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간 사 ■ ■ ■

청소년들의 수용시설 구금경험은 정상적인 일상 활동의 단절을 의미하고, 성인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반드시 청소년이 누려야 할 많은 성장기회와 준비과정을 박탈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000년 이후 비행청소년에 대한 소년원 시설 운영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에 부응하는 “특성화 학교 체제”로 전환하였지만, 문제는 여전히 시설 퇴원 후에 그들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잃어버린 성장, 발달의 기회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원 사후지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설 퇴원 후 6개월 전후 시점에 있는 비행청소년을 설문조사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개별욕구와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시설 퇴원 초기 6개월 전후 기간에 어떻게 청소년이 가정, 학교, 교우, 건강, 취업, 거주지 문제 등을 관리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소년원 교육의 실효성, 국가 소년교정 경비의 효율화가 담보된다고 볼 수 있어, 본 연구는 특히 청소년 범죄예방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소년원 퇴원자들에 대한 개별욕구가 단기에서 장기로 보다 확대되어 조사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그 욕구에 따라 사회의 “통합형 청소년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년원 이후의 교정정책이 청소년의 성장, 발달, 교육을 원호하는 실질적인 “집중 사후지도 서비스”로 거듭나길 바라며, 본 연구가 소년사법 실무자와 청소년 복지 관련 연구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도와주신 법무부 소년보호 및 보호관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담당한 조윤오교수와 이유진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1년 10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 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출원생의 생활실태 및 개별육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223명의 퇴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소년원 입시퇴원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1) 위험요인과 (2) 비행행위 수준, (3) 보호관찰 감독정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진 욕구(needs)를 파악하고자 주거불안, 학교 부적응, 취업욕구, 빈곤, 가족갈등, 비행교우, 건강 측면의 문제들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출원생의 사회복귀 장애요인을 밝히기 위해 퇴원자 (1) 개인성향, (2) 가정요인, (3) 지역요인, (4) 프로그램요인, (5) 보호관찰 감독요인을 다시 개별적으로 검토했다.

위험요인을 살펴본 결과, 퇴원 청소년들 일부가 지역사회에서 빈곤, 결혼 가정, 가출경험 상황 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으로 돌아와 자유를 만끽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막상 가정과 사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때부터 다시 옛날의 불규칙한 생활로 쉽게 돌아가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퇴원 후 가출했던 청소년이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일부 청소년들이 가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을 시도한 것이다.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 1순위로 청소년 (35.0%)들은 “부모님과 관계개선”이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퇴원 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갈등상황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관계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질문에 두 번째로 많았던 답변은 “주위의 따뜻한 시선(24.7%)”으로 여전히 일부 청소년들이 비공식적 낙인 효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들은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퇴원생은 전체의 84.8%였고, 나머지 13.4%는 친구집, 애인집,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등 불안정한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나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처우 및 지도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관찰 감독정도에서는 약 20%가 담당 보호관찰관과 월 4회, 즉 매주 한 차례이상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3회의 감독횟수도 전체의 12.6%에 해당하였고, 월 2회는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청소년 서비스 제공 및 개별육구 차원에서는 사후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 퇴원 후 실제 학교에 복학한 경우는 응답 청소년 전체의 23.8%에 불과했고, 구직/취업준비(37.75)를 제외한 나머지 37.1%가 “계획 없음, 검정고시 준비, 기타” 등 불투명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 후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의 청소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거나(28.7%) 친구나 선후배의 도움(13.9%)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한 경우(1.8%)가 아니어서 그 취업 상황이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원생의 현재 육구가 복학인지, 혹은 취업인지에 따라 보다 개별화된 구체적인 목표 중심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복학에 성공한 학생이라면, 물론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겠지만, 만약 취업이 절실한 청소년이라면, 직업훈련 관련 처우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20대 초반을 최소한의 경력 기반 준비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 전체의 34.1%가 집안의 가난이라고 답했다.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라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 자립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일찍부터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사후지도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 전체의 34.1%가 집안의 가난이라고 답했다.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라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 자립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일찍부터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사후지도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퇴원 청소년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 많은 청소년(33.6%)들이 퇴원 후 6개월 전후 시점에서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답했기에, 청소년들이 퇴원 후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33.6%)”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29.6%)”이라면, 이들의 욕구(needs)에 적합한 개별 사후지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보호관찰과 지역사회 청소년복지 서비스 체계를 통해 보다 원활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보호관찰관에 의한 밀착, 집중 감독은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행동수정, 재범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엄격한 통제, 모니터링, 단계별 제재조치 수단 등은 향후 고위험 청소년에게 더욱 활발히 적용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IAP 모델도 보호관찰관을 통해 소년 전자발찌 부착, 가택구금, 모발 약물검사,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활용하여 집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활한 사회복지 및 리엔트리의 관건은 청소년이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체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가장 심각한 장애(barriers)와 욕구(needs)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소년원 퇴원 청소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각 부처통합형 사례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퇴원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요인과 개별욕구, 장애요인들이 소년원 교육과정 및 소년보호관찰 지도감독 현장에 반영되어 효과적인 비행청소년 수용보호 처우 및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연구과제로 장기적 측면에서 소년원 퇴원자들을 추적 조사(follow-up)하여 그들의 공식적인 재범상황과 그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연구가 계속되길 바란다.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이 소년원 출원 후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생활실태 속에서 어떤 개별 욕구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소년원이라는 수용보호시설의 퇴원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들의 학교, 주거, 취업, 가족, 교우, 건강 상황 등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용보호시설 퇴원 후의 상황을 청소년이 갖고 있는 위험요인(risk factors)과 개별욕구(needs), 장애(barriers) 요인에 따라 검토하여 새로운 소년원 퇴원생의 사후지도 전략을 논의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있다.

소년원에서 일정기간 자유를 억압당한 채 단체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익히며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돌아보던 청소년들은, 제각기 바깥세상을 동경하다가 막상 사회에 나오게 되면 자신의 처지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더욱 적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원 퇴원 이후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이 결국 성인 범죄자가 수용시설 출소 이후 경험하게 되는 과도기적 전이단계(transitional process), 즉 범죄자 리엔트리(reentry)와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수용시설 내의 교도소 문화에는 잘 적응했던 많은 성인 범죄자들이 출소 후 6개월 이내에 사회 부적응으로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것은 출소 후 최초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며, 이 시기에 사회복귀 및 재적응을 위한 복잡한 욕구들과 상황들이 관리되고 지원되어야만 범죄자들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보건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발표에 따르면, 첫 출소 후 3년 이내 전체 가석방자들의 2/3 정도가 다시 체포되는데, 그 중 대다수가 출소 후 6개월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경찰 훈방조치, 보호관찰 처분 등 다양한 형태의 소년형사사법 시스템을 수차례 경험한 고위험 비행청소년에게는, 출원 후 어떤 종류의 사후 감독 및 서비스가 제공되느냐에 따라 그들의 재범순환 고리를 단절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반복적인 상습범죄자나 성인범죄로 옮겨가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소년원을 퇴원한 비행청소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위험 요인(risk factors), 개별 욕구(needs), 문제해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요인(barriers)등을 퇴원 초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초점을 두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만 성공적인 퇴원 소년 사후지도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소년원 퇴원생 223명을 중심으로 퇴원 후 비행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생활환경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생활실태는 크게 자기보고 비행 정도와 보호관찰 감독정도, 가정상황, 친구관계, 학업 및 취업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비행청소년 집중 사후지도(intensive aftercare program) 원리에 따르면 효과적인 사후지도는 청소년의 명확한 책임의식과 엄정한 감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므로, 보호관찰 감독 상황과 퇴원 후 자기보고 비행정도, 소년이 갖고 있었던 위험요인(risk factors)을 함께 검토한다.

둘째, 소년원 퇴원자 개별 청소년이 안고 있는 욕구(needs)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시카고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청소년 자기보고(Youth Self Report)”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청소년복지욕구조사” 설문문항 등을 혼용하여 “소년원생 퇴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퇴원 이후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개별욕구들을 주거, 학교복학, 취업, 경제상황, 가족관계 중심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항이 퇴원 청소년에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한된 지역사회 자원이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의 개별 욕구유형과 욕구강도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이 사회 재적응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실질적인 어려움(barriers)을 살펴보는 데 주력한다. 어려움이란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사회적응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는데 장애가 되는 난관들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지원 요인이 포함된다. 퇴원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나 성취감이 부족하고, 어디서 어떤 직업훈련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개인성향 장애요인은 준법의식과 즉흥성, 자존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장애요인을 가정요인, 지역사회 요인, 프로그램 요인, 감독 효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조사한다.

2. 연구방법

소년원생 출원 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년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온 비행청소년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이다. 본 연구는 출원 후 사회적응 곤란 시기, 특히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형기 만료된 퇴원생이 아닌, 주로 임시퇴원 후 6개월 전후의 보호관찰 소년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 설문을 실시하였다. 형기 완료된 소년원 퇴원생이 아닌 보호관찰 소년대상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표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전후의 주요시점(critical moment)만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임시퇴원생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궁극적 연구목적 달성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는 소년원 출원 이후의 실태조사 검토시기를 가급적 짧게 조절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임시퇴원 대상자들의 의무적 보호관찰로 인해 그 접촉이 용이하다는 현실적 이유와도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여기에서는 전국 보호관찰소의 소년보호관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전후의 청소년만을 설문대상으로 한정하여 익명성을 전제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범죄백서, 보호관찰통계연보, 관련 소년원 연구 용역자료 등 국내 문헌검토를 통하여 소년원 출원 후의 실태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2004년에 이미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보고되었고, 2010년에도 법무부 용역과제를 통해 “소년원 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어, 최근 지속적으로 소년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출원 후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심층 조사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2004년에 미국의 “청소년 재통합 및 사후지도 센터(Juvenile Reintegration and Aftercare Center, JRAC)가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최근의 집중 청소년 사후지도(Intensive Juvenile Aftercare)가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문헌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3. 주요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소년원 퇴원생 223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기본특징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서는 18세가 전체의 30.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세 26.0%, 17세가 15.7%를 차지하여 18세>19세>17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24명으로 전체의 10.8%에 불과하였다.

둘째, 성별을 살펴보면 임시퇴원으로 사회에 나온 전체 223명 중 결측값 2명을 제외하고 33명이 여자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88명(84.3%)이 남자 비행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구조를 보면 전체 소년원 퇴원 표본 중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구조적 결손가족 하에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56.5%에 달했다. 즉, 절반 이상의 소년원 퇴원 청소년이 결손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학력 요인에서는 중학교 졸업 비율이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전체의 22.0%에 해당하였다. 또한, 중학교 재학생(8.1%)과 고등학교 재학생(14.3%) 비율을 제외한 중퇴 상황 하의 청소년 비율이 전체의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절도사범이 전체의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전체의 23.3%로 많았다. 성범죄사범 청소년도 전체의 17.0%에 이르렀고, 폭력사범(폭행과 강도 포함)은 전체의 1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유형 비율 별로 절도사범>보호관찰법위반>성범죄사범>폭행사범>기타라고 볼 수 있다.

2) 생활실태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생활실태는 크게 (1)위험요인과 (2)비행행위 수준, (3)보호관찰 감독 정도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첫째, 위험요인(risk factors) 측면에서 소년원 퇴원 후의 생활실태를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면 ①경찰체포 경험, ②소년원 전과, ③최초 체포연령, ④가족수입, ⑤음주/흡연 등, ⑥부모-자녀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 형사사법 기관 접촉 경험이 직접적으로 현재의 생활실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과거 전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에 재적응하는데 그 경험이 공식적·비공식적 낙인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생활실태 개념에 전과 및 과거 부정적 경험들을 포함시켜 폭넓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 데이터 내에서 본 사건 이전에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전혀 없는 “초범”은 전체의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약 73%는 1회 이상의 경찰 체포경험이 있는 비행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경찰단계에서 훈방 조치된 경력을 갖고 있고, 소년원 수용 전에 이미 지역사회에서 ‘사랑의 교실’과 같은 전환 프로그램을 경험한 경력 비행청소년들이라 하겠다. 심지어 전체의 26.9%가 본 사건 이전에 이미 소년원 전과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1/4의 청소년들에게 소년원 구금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은 반복된 입원-퇴원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29.6%가 14세 이전에 경찰체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원 입원 전까지 어린 시기에 비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수입 액수에서는 전체의 15.7%가 가족수입이 약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도 전체의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1%가 “경험 있음”이라고 답해, 이미 대다수의 비행청소년들이 소년원 경험 이전부터 가정을 떠나 혼자 살거나, 친구들과 혼숙을 했던 주거부정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경험에 대해서는 퇴원 청소년들 전체의 7.6%가 “경험 있음”에 표기하여, 일부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5.7%가 지금까지 성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53.4%에 달했다.

소년원 퇴원 후에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대는 주로 부모 및 보호자들에 의해 나타났고, 손바닥으로 얼굴, 뺨, 머리 등을 맞는 신체적 폭력이 전체의 16.9%(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보고 비행(Self-Report Delinquency) 측면에서 퇴원 후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경미한 수준의 비행과 중대한 수준의 비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미한 수준의 비행에서는 퇴원 후 청소년들 대다수가 흡연,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전체의 약 80%가 퇴원 후 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음주는 전체의 약 70%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여부를 살펴보면, 퇴원 후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전체의 약 15%가 무단으로 집을 나왔던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주거부정의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 등의 교통질서 위반행위를 보고했고, 소년원 퇴원 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킨 경험은 전체의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수준의 비행에 해당하는 환각제 또는 본드 등의 약물사용은 퇴원 후 전체의 약 5%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절도행위는 전체의 6%에 해당하였고, 타인을 심하게 때리는 폭력행위는 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에서 몰래 물건을 훔친 행위도 전체의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의 성폭행, 강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은 자기보고 비행조사 결과,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독정도(supervision level) 차원에서 청소년 생활실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년원 입시퇴원 대상자의 경우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그 감독상황이 어떠한지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년원 퇴원 생활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을 월 1회 정도 접촉한다고 말한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35.9%로 가장 많았고, 월 2회가 전체의 26.9%로 다음으로 많았다. 월 3회 이상은 전체의 12.6%였고, 4회 이상, 즉 한 주에 한 번 이상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20.2%에 해당하였다.

3) 개별욕구

퇴원 후 사회에서 비행청소년이 느끼는 개별욕구는 (1)주거문제와 (2)학교적응, (3)취업, (4)경제적 빈곤, (5)가족갈등, (6)비행교우, (7)건강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주거여건을 물어봤을 때는 전체의 13.4%가 부모가 아닌 친구(애인 포함)집 또는 법무보호공단 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7.8%는 친척이나 가족과 같이 어느 정도 혈연관계가 있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약 13%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혼자 소년원에서 나와 생계를 책임져 나가야 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적응을 살펴보면 소년원 퇴원 후 학업과 관련된 장래 계획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복학계획(23.8%), 검정고시 준비(18.8%), 기타 대학진학(15.2%) 등으로 전체의 약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을 검토하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현 시기에 전체 응답자의 35.0%가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 자신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청소년도 전체의 13.0%에 달해 전업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4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게 된 경로 대부분이 청소년이 광고 등을 통해 자력으로 구한 자리(64명)이고, 소년원 알선이나 보호관찰소 기관 알선은 4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취업 알선 사후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경제적 빈곤 요인을 살펴보면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의 33.6%, 가정형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29.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나 학업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 두 가지 모두 퇴원 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경제적 빈곤가정 하에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가족갈등 상황을 검토하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퇴원 후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설문에는 전체의 35.0%가 “부모님과의 관계개선”이라고 말해 1/3 이상의 청소년이 가족관계 개선 욕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비행교우 요인을 보면 “싸움을 잘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 청소년의 약 33.0%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보여 폭력적 성향이 있는 교우들과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전체의 1/3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친구가 욕을 잘 한다고 답한 경우 역시 비슷한 수치인 전체의 약 30.0%에 해당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 청소년의 약 5.0%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라는 문항 역시 전체의 5.3%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일곱째, “환각제나 본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청소년이 약 5.0%에 해당하였다. 또한, “성병으로 고민한 경험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2.2%만이 긍정적 답변을 보였고, “임신 또는 출산의 문제”에서는 전체의 3.6%만이 “그렇다”라는 태도를 나타냈다.

4) 장애요인

수용보호시설 퇴원 후, 청소년이 성공적인 사회 적응 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1)개인성향 외에도 (2)가정요인, (3)지역요인, (4)프로그램 요인, (5)감독요인 등의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성향 요인을 청소년의 ①준법의식, ②즉흥성, ③자존감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가정요인은 ①보호자의 방임/감독 정도와 ②부부갈등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역요인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①치안여건과 ②연대의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검토한다. 프로그램 요인에서는 지역사회 ①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정도와 ②소년원(또는 보호관찰소) 프로그램 만족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감독요인에서는 보호관찰 감독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측정한다.

첫째, 장애요인으로써 개인성향 측면은 준법성, 즉흥성, 자존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준법성의 경우 “공중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 전체의 17.2%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 즉흥성은 “나는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하고 보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의 31.9%가 긍정적 태도를 보여 약 1/3 정도가 즉흥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에서는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전체의 2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10.3%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둘째, 가정요인 측면의 장애요인은 (1)방임/감독 정도, (2)부부갈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호자의 적절한 훈육부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상관하지 않는 식”의 보호자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부부갈등 요인에서는 “부모가 싸울 때 때린다”는 문항에 전체의 4.4%가 긍정적 답변을 했고, “싸울 때 부모가 욕을 한다”는 경우도 전체의 7.6%에 해당하였다.

셋째, 지역요인에서는 (1)치안여건과 (2)지역 연대의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나누어 살펴본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라는 문항에 전체의 21.0%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지역 연대의식에서 보면 “이웃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낸다”가 전체의 3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치안여건은 비교적 좋지 않은 편이나, 실질적인 지역 유대감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 하겠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웃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익명성이 다른 지역보다 감소하는 특성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넷째, 프로그램 요인을 살펴보면 (1)지역사회 프로그램 인식정도와 (2)소년원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 만족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및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각각 53.4%와 48.9%)를 제외하고는 많은 프로그램(고용안전 센터, 청소년공부방, 그룹홈, 성 문화센터 등)에 대해 대다수의 청소년이 “모른다”라는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소년원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하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보호관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의 35.0%가 자격증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호관찰 감독 측면에서 보호관찰이 재범방지나 준법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는 질문을 통해 얼마나 보호관찰이 청소년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크게 도움 되었다”와 “약간 도움 되었다”의 긍정적 답변이 전체의 8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수용보호 시설인 소년원이 본격적으로 “학교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행청소년 사법정책은 놀라운 변화·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소년원 퇴원 후 사후지도 상황은

여전히 비행청소년에 대한 국가정책이 보호관찰 감독 중심의 강경대응(get-tough)식 “모니터링”인지, 철저한 원호지원 방식의 “교육보호”인지, 그 방향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 특성화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명확한 감독, 지도, 훈육, 보호관찰관에 의한 확고한 모니터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효과적인 치료, 상담 및 원호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하겠다.

연구 결과, 소년원 퇴원생들은 입원 전부터 복잡한 위험요인(risk factors)들을 가지고 있었고, 퇴원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위험요인과 관련된 욕구에서 주거지, 가정, 학교, 취업,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퇴원 청소년들에 대한 감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이 가진 욕구나 실태 상에 나타난 갈등상황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에 대한 새로운 집중 사후지도 서비스 체계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소년원에서 정상적으로 퇴원한 경우에는 임의적 사후지도 원칙으로 인해 그 효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임시퇴원의 경우에도 필요적 보호관찰로 어느 정도의 감독 강제성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개별 사후지도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효과적인 사후지도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의 과도한 업무량 문제와 더불어 보호관찰관의 사례관리를 함께 실시할 집중사후지도(IAP) 모델 협력자로서의 전문 교정 사회복지사나 아동상담자를 찾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및 복지체계 증진 사업들이 사실은 소년원 퇴원자들을 위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기관통합형 사례관리(integrated case management)”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는 성인 범죄자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훨씬 더 증가된 수준의 보호관찰 감독을 소년 보호관찰대 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년원 퇴원 후에 재범을 단절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보호관찰 감독기법과 청소년 개별욕구 위주의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한국형 '집중 사후지도(intensive aftercare)' 모델로 도입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한 비행청소년 ‘전이 거주 프로그램’(transitional housing program)은 보호관찰소에서 위탁된 청소년을 무조건 문제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상책’으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립과 책임성을 원칙으로 하는 효과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 출신 청소년을 다시 “쉼터”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공동생활 숙소에 넣기 보다는, 사회의 예비성인으로 인정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주거지 계약에서부터 통장관리, 건강/여가 관리, 식단 준비, 취업 경력 계획 등을 보호관찰관과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자는 것이다. 한 달에 약 \$900의 지원금이 한 청소년에게 지원되는데,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봉급만큼의 일정 금액을 따로 통장에 적금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에 청소년에게 목돈으로 돌려주는 재정관리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격적인 경제지원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제공하고, 지정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가 직접 세심한 사회적응 단계를 지원해 주는 지역사회 교정 중심의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시퇴원 비행청소년 223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가족빈곤과 구조적/기능적 결손문제, 저연령 시기부터 시작된 비행 습벽 등의 위험요인(risk factors)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감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생활지도 및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욕구(individual needs) 차원에서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청소년의 개별 상황은 퇴원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본인이 파트타임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았고, 퇴원 후 가족갈등 상황에서 다시 가출을 하는 비행청소년이 있어 체계화된 사후지도 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청소년 리엔트리와 집중 사후지도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한국형 퇴원 청소년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모델”을 소년 보호관찰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제한된 성장, 발전기회로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학업, 취업 능력이 제한된 비행청소년들은 10대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소년원이라는 수용시설 내에서 단체 구금생활로 보낸 청소년들이다.

퇴원 후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장애(barriers)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접근 능력과 자원 활용 도구들을 제공하여, 그것이 하나의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비행청소년에게 상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청소년 보호·복지 측면의 실질적인 사후지도 서비스가 비행청소년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그들의 비행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향후 소년원 퇴원이 또 다른 성인 범죄로의 전이나 반복적인 비행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먼저 소년원 퇴원 전 6개월부터 퇴원 후 6개월까지의 개별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해 그 효과성을 평가해 보는 사후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소년원 퇴원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부적응은 일반 청소년 쉼터 및 보호시설 퇴원생들과 매우 유사한 기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제 일반 청소년 보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소년원 퇴원생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처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소년원 퇴원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새로운 ‘통합형 사례관리 집중 사후지도 모델’을 개발한다면, 청소년 지원 국가비용의 효율화는 물론 지금의 소년 재범률을 30% 이하로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소년사법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필요성	6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청소년 리엔트리(Youth Reentry) 관련 이론	11
1. 청소년 리엔트리의 의의와 범위	13
2. 청소년 리엔트리의 내용과 효과	15
3. 청소년 리엔트리 관련 연구	16
제3장 소년원 출원생 생활실태 조사	21
1. 출원생 사후지도 배경 실태	23
1) 사후지도 배경 및 법적 근거	23
2) 사후지도 내용 및 실태	25
2. 출원생 생활실태 조사 방법	30
1) 자료수집과 연구 설계	30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3. 출원생 위험요인	33
1) 경찰체포 전과	33
2) 소년원 전과	34
3) 최초 체포연령	35
4) 가족수입	35
5) 흡연·음주 등	36
6) 부모-자녀 관계	37
4. 출원생 비행행위 수준	42
1) 경미한 비행행위	42

2) 중대한 비행행위	44
5. 출원생 보호관찰 감독	45
제4장 소년원 출원생 욕구(needs)조사	47
1. 욕구조사 항목 개요	49
2. 욕구조사 분석결과	50
1) 주거문제	50
2) 학교 부적응	50
3) 취업곤란	51
4) 경제적 빈곤	53
5) 가족관계 갈등	54
6) 비행교우	55
7) 건강문제	56
제5장 출원생 사회적응 장애(barriers)요인	57
1. 장애요인 문항내용 및 조사방법	59
2. 장애요인 항목 분석결과	60
1) 개인성향 측면의 장애요인	60
2) 가정요인 측면의 장애요인	62
3) 지역요인 측면의 장애요인	63
4) 프로그램 측면의 장애요인	64
5) 보호관찰 측면의 장애요인	67
제6장 미국의 청소년 집중 사후지도(IAP)	69
1. 개념 및 출현배경	71
2. 핵심원리 및 기본 구성요소	72

3. 운영방법 및 절차	74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7
1. 결 론	79
2. 정책적 제언	83
참고문헌	85
부록 설문지	95
Abstract	109

표 목차

〈표 1〉 소년원 수용인원 일일평균 추세	25
〈표 2〉 소년원 출원 인원 추세	26
〈표 3〉 취업 및 자립지원 추세	26
〈표 4〉 사후지도 및 자립생활관 이용	27
〈표 5〉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자 현황	28
〈표 6〉 퇴원 학생 사회정착 내용 별 현황(2010. 06~2010. 12)	28
〈표 7〉 학업연계 퇴원생의 사후 적응 실태(2010. 06~2010. 12)	29
〈표 8〉 취업 퇴원생의 사후 적응 실태(2010. 06~2010. 12)	29
〈표 9〉 기타 퇴원생의 사후 적응 실태(2010. 06~2010. 12)	30
〈표 10〉 기본 인구사회학적 특징	32
〈표 11〉 경찰체포 전과	34
〈표 12〉 소년원 구금전과	34
〈표 13〉 최초 체포연령 시기	35
〈표 14〉 가족 월수입 정도	36
〈표 15〉 흡연음주 등	37
〈표 16〉 보호자의 자녀 학대 정도	42
〈표 17〉 경미한 비행행위(소년원 퇴원 후)	43
〈표 18〉 중대한 비행행위(소년원 퇴원 후)	44
〈표 19〉 보호관찰 감독정도	45
〈표 20〉 현재 주거 상황	50
〈표 21〉 장래 학업계획 관련	51
〈표 22〉 학교기피 이유	51
〈표 23〉 취업상황	52
〈표 24〉 취업알선 방법	52
〈표 25〉 현재 가장 어려운 점	54
〈표 26〉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	54

〈표 27〉 비행교우	56
〈표 28〉 건강문제	56
〈표 29〉 준법성	60
〈표 30〉 즉흥성	61
〈표 31〉 자존감	61
〈표 32〉 부모의 방임·감독 정도	62
〈표 33〉 부부갈등	63
〈표 34〉 치안여건	64
〈표 35〉 지역 연대의식	64
〈표 36〉 지역사회 프로그램 인식정도	65
〈표 37〉 교정프로그램 만족도	66
〈표 38〉 보호관찰 만족도	67
〈표 39〉 보호관찰 추가 필요 프로그램	6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내용 개요도	10
【그림 2】 소년원 처우 절차	24
【그림 3】 가족화목 정도	38
【그림 4】 가족대화 정도	38
【그림 5】 가족 외출운동 동참 정도	39
【그림 6】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40
【그림 7】 부모의 사랑과 관심 정도	40
【그림 8】 퇴원 후 가족관계 개선정도	41
【그림 9】 경제적 빈곤	53
【그림 10】 가족관계 개선정도	5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09년 한 해 일일 평균 소년원 수용·보호 인원이 약 1,191명에 이르고, 퇴원, 처분변경 등의 이유로 소년원을 나가는 인원이 총 2,131명에 달하고 있다(법무부, 2010). 그러나 소년원 퇴원 후 사회로 돌아간 비행청소년이 얼마나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는지, 그리고 원만한 학교생활과 부모관계, 교우관계를 수립하며 건전한 성인의 한 명으로 성장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실태와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Bullis & Yovanoff, 2002; 이정미, 2007).

소년원 내부 교육은 나날이 학교 교육체제로 특성화되어 가면서도 정작 청소년들이 가장 절실히 도움을 요구하는 퇴원 후의 과도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김지선, 2004). 또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년범의 재범률이 꾸준히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사후지도(aftercare) 원호지원 서비스 모델이 요구된다 하겠다(안선영·김지희,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소년원에 입원했던 비행청소년들이 시설 퇴원 후 겪게 되는 사후 생활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년원 출원자가 사회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욕구(needs)를 조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소년원 등을 이용한 비행청소년 수용·보호 시설이 아무리 새로운 교정프로그램과 학교 특성화 시스템을 마련한다 해도, 출소 후 부적응으로 인해 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청소년이 가진 근본적인 욕구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수용보호 시설에서의 시간은 충분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박현수·정혜원, 2010). 결국 사후지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적 패러다임 변화 없이는 소년원 출원자들에 대한 진정한 재범방지 효과 달성은 어렵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시설수용 후 퇴원한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학교적응 절차와 비공식적 낙인 극복, 가정 관계 회복 등 또 다른 사회 재적응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Abrams, 2007). 2008년 개정 소년법이 단기 1개월의 충격구금을 만들고, 사회봉사명령 등의 사회내처분을 단독

보호처분으로 명문화한 것도 시설 구금 처분을 줄여 청소년에게 시설수용 보호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현·강정래, 2010).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짧은 기간의 구금 생활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회로 되돌아가게 되면 청소년은 신속하게 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고, 수용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범죄의 순환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Fields & Abrams, 2010; 이성철, 2002). 퇴원 청소년이 처한 가정 현실과 학업능력, 경제적 여건, 적응능력, 부모의 지원의지 등은 일반 청소년의 그것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열악하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 출소 후 1년 이내에 안정적인 직장이나 학업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은 전체 출원자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Bullis & Yovanoff, 2002).

많은 청소년 리엔트리(reentry) 연구 결과에서도 퇴원 후 사회에서 정상적인 학교 및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 수치가 실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퇴원 후 정상적인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Habermann & Quinn, 1986; Altschuler & Brash, 2004; Osgood Foster, Flanagan, & Ruth, 2005).

보통 수용시설에서 출소한 후 사회적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족의 지원이라고 하겠다. 가족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효과적인 사회적응, 재범방지가 실제 사회에서 현실로 가능해 진다(Abrams, 2007). 그러나 많은 소년원 퇴원 청소년들이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출신으로 충분한 사후지도 및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안선영·김지희, 2010). 사회에서 사회적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후지도 전략에 그 장애요인 제거를 핵심 목표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시퇴원 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223명을 중심으로 출원 후의 생활실태와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는 장애(barriers) 요인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한다.

소년원 퇴원 후 비행청소년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가 집중적 사후지도를 통해 그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제한된 사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퇴원 청소년에게 전달하고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증거-중심 교정(Evidence-based correction) 정책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증 연구를 통해 퇴원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장애요인을 함께 밝히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소년원 출원 후의 비행청소년 생활실태를 위험요인과 보호관찰 감독정도, 비행행위 수준, 개별 욕구, 장애요인 중심으로 살펴보고, 어떤 항목에 보다 초점을 두어 비행청소년 사후지도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시설 수용·보호를 통해 규칙적 단체생활

을 하던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퇴원한 후, 다시 비행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학교나 취업 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날 수도 있어 자기보고 비행 조사와 개별 욕구(needs)를 함께 검토한다.

어린 시절의 구금은 성인이 때의 구금 경험보다 인생 전반에 걸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ears & Travis, 2004). 단순히 시설 수용 기간만으로 그 장기효과를 따진다면 청소년에 대한 구금 기간은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짧아 성인보다 부정적 효과가 적을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실제 청소년기의 수용시설 기간은 전체 10대 대다수 기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구금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원 퇴원자를 위한 개별화된 욕구조사와 사후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은 특정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청소년의 성장과 건강을 보장하는 첩경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 생활실태를 가정생활, 학업 및 취업관계, 친구관계, 비행정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등에서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생활실태는 위험요인과 비행행위 수준, 보호관찰 감독 세 범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임시퇴원 된 청소년의 경우, 소년원 수용시설 경험을 마치고 비행청소년이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시설 내에서 생활할 수 없었던 많은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비행으로 연결된다. 소년원을 나온 비행청소년은 보통 자신이 속했던 역기능적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 대부분이 시설 퇴원 후 반복적으로 가출 및 비행행동을 보임으로써 2차 범죄와 약물남용, 정서적 불안 문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Fields & Abrams, 2010).

둘째, 본 연구는 퇴원 후 청소년이 보이는 개별 욕구조사를 통해 기존의 사후지원 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소년 리엔트리 전략이 제시하는 방안들을 고찰한다. 미국에서 시설수용 퇴원 이후의 소년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지 못한 채, 취업상황도 불안정한 가운데 거주부정과 심각한 빈곤 문제를 겪으며, 약물·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신체·정신 건강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ears & Travis, 2004).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원 경험자가 일반 청소년보다 더 일탈적인 또래집단과 학교 부적응, 불안정한 가정 문제 등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퇴원 소년들이 더 빈번하게 노출되어, 전체 소년 퇴원자 10명 중 4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지선,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시설수용 후에 따른 독특한 욕구(needs)를 기반으로 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엔트리(reentry)” 전략과 소년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된 “과도기적 전이(transition)”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Abrams, 2007). 이에

본 연구는 소년원 수용 경험자의 사후지도 정책을 보다 효율화, 전문화하기 위해 시설 퇴원 후의 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와 욕구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비행청소년이 일정 기간 소년원 구금 경험을 마치고, 사회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후지도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소년원 퇴원 후, 정확히 소년들이 어떤 분야에서 가장 부적응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지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 인식도와 과거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년 사후지도 서비스 전략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첫째,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사후지도 연구를 통해 기존 소년원 교육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그 효과성을 장기화시킨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만약 소년원 출원 이후의 생활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비행청소년이 겪게 될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갈등 상황이 소년의 2차 비행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 다양한 보호처분들은 조기에 실현하고자 했던 긍정적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퇴원 이후의 적절한 사후지도가 있어야 소년원에서 받았던 효과적인 소년원 처우지도가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청소년의 재범방지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출원 후 가정, 학교, 사회로의 적응이 어려워진다면, 소년원 구금 경험은 단지 부정적 낙인효과만 남겨나, 소년의 ‘성인범죄로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범죄학습 효과만 불러올 우려가 있다. 소년원이 진정한 교육기관으로써 구금기간 동안 아무리 좋은 교육 및 취업훈련 내용을 실시해도, 비행청소년이 퇴원 후 사회에서 효과적인 사후지도, 관리, 원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진정한 소년법 상의 “건전한 소년 육성”은 이루어질 수 없고 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둘째, 출원 후 생활실태 조사는 기존의 사후지도 내용 적절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청소년 사후지도 및 리엔트리 프로그램 중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이나 가족관계 치료법(family therapies)이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rams & Snyder, 200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소년원 퇴원 이후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이고, 실제 사회에서

소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후지도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년원을 퇴원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가장 받고자 하는 사후지원 서비스가 무엇인지 묻고, 관련 서비스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 현재의 사후지도 내용과 전달 방법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의 소년원 구금 기간 동안의 교과과정 내용과 사회복귀 지원 개선방향을 알아보는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소년원 교정교육 과정이나 운영상황, 사회복귀 지원정책의 한계점 등이 출원 후의 욕구조사를 통해 보다 분명해 질 수 있고, 실태분석 및 욕구조사 결과는 소년원 교육과정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증거-중심 교정(evidence-based correction)’ 정책의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더욱 강조될 수 있는데, 하나는 최근 증가하는 소년원 수용 인구 추세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설 수용 경험자 “리엔트리” 철학과 관련이 깊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년원 인구 추세를 보면, 연간 소년원 신수용 인원이 1997년에 4,185명으로 정점에 올랐던 것이 매년 감소하다, 최근 2007년을 기준으로 다시 소년원 수용 인원수가 증가하는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한 해 1,732명이던 소년원 수가 2009년 신수용 인원 기준 2,775명으로 급증하였다(법무연수원, 2010). 수용기간의 적절성도 중요하겠지만, 시설 수용 경험 자체가 청소년의 성장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기에 초점을 두어 퇴원 후 적응 서비스 제공에 모든 국가적 지원을 쏟아야 할 것이다. 소년원 시설 수용 인구의 증가는 결국, 소년원 출원자의 수 급증과도 연결된다. 수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출원하여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응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Fields & Abrams, 2010).

둘째, 리엔트리(reentry) 철학과 관련하여, 시설수용 증가 추세는 사회로부터의 낙인, 사회 부적응 고위험 청소년 양산 증가의 문제까지 함께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시설 퇴원 이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출원 후 초기 6개월 이내의 시기에 개별욕구 차원의 사후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회적응과 재범방지 실현이 가능해진다. 청소년에 대한 교정경비는 성인의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실제 재범발생률도 성인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효과적인 리엔트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critical time)에 가장 중요한 사후지도 서비스(aftercare service)가 청소년의 책임(accountability)을 전제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퇴원-사회적응 절차 전반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빈곤, 학업 중퇴, 가출, 거주지 불안, 가족해체,

정서불안 등의 문제가 퇴원 후 “소년원 출신자”라는 딱지로 더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nyder & Sickmund, 2006).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소년원 퇴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출원 후 느끼게 되는 생활실태와 그 이전부터 그들이 갖고 있던 고위험 요인, 욕구 수준, 예상되는 욕구달성 장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데 초점을 둔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소년이 구금되기 이전부터 가정에 내재되었던 부모의 이혼, 가정해체, 잘못된 자녀양육 훈육 및 양육방식이 소년원 퇴원 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년의 가출, 비행교우와의 교류,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이미 악화되었던 부모-자녀 갈등이 소년원 퇴원 이후 더욱 악화될 수 있다(Abrams, 2007). 퇴원 후의 소년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결국 소년의 2차, 3차 비행은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소년원 교과과정 구성과 최적의 소년 사회복귀, 리엔트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므로, 조사 내용도 단순히 출원 후의 생활실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년의 주관적 서비스 욕구와 이전의 고위험 요인, 서비스 달성 장애요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내용은 소년원 퇴원 후의 (1)생활실태, (2)개별욕구, (3)장애요인 세 가지이다.

첫째, 생활실태는 다시 ①위험요인, ②비행행위, ③감독정도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그림 1참조). 위험요인은 소년원 전과경력, 흡연/음주, 가족 경제상황 등과 같은 과거 청소년이 지닌 문제행동 상황 등을 의미하는데, 결국 위험요인이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 사회복귀 정도도 달라진다고 하겠다. 비행행위는 퇴원 청소년의 자기보고 비행행위 정도를 의미하고, 감독정도는 임시퇴원으로 청소년이 받고 있는 보호관찰관과의 감독 횟수를 말한다.

둘째, 개별욕구는 주거, 학교, 취업, 가족관계 등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불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장애요인은 청소년 개별욕구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항목들로서 여기에는 ①개인적, ②가정적, ③지역적, ④프로그램적, ⑤감독적 차원이 포함된다. 개인적 장애요인에는 청소년이 가진 준법의식, 즉흥성, 자존감 정도가 내부에 포함되고, 다시 가정적 장애요인에는 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가 보이는 방임정도와 부부갈등 정도가 포함된다. 지역적 장애요인에는 지역사회 치안수준 정도와 청소년이 갖는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감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적 장애요인은 지역사회 청소년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여부와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된다. 감독적 차원의 장애요인은 청소년이 받고 있는 보호관찰 감독이 얼마나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청소년에게 인식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출원 후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청소년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나 범죄예방위원, 또는 상담사 등의 자원봉사자와 면담을 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년의 개별 욕구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해, 소년원 시설을 경험한 청소년 당사자를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다. 대상은 형기 만료된 퇴원생이 아니라 임시퇴원으로 설문 당시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욕구 조사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설문 전에 미리 2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구조화된 국내외 관련 설문 문항을 번역, 수정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를 개발·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분석방법은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빈도분석에 한정되고, 시각적 설명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히스토그램과 원도표 등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소년원 출원 후 약 6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청소년 생활실태 및 욕구를 밝히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으므로, 다양한 추론통계(inferential statistic) 분석은 지양하고, 단순 빈도분석으로 각 항목에서 얼마만큼의 응답 비율 차이가 일어나는지 살피는데 주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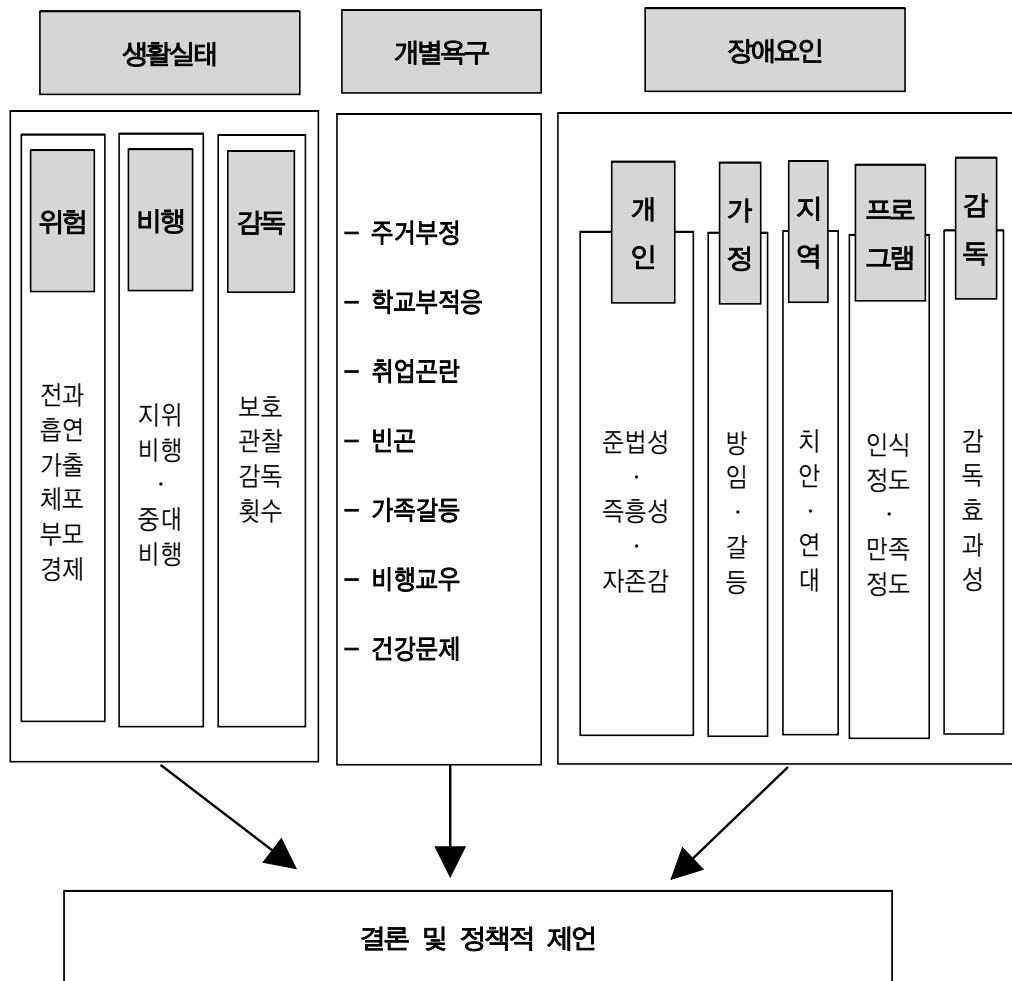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개별 문항들은 2008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개발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욕구조사”와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8호 처분을 중심으로,” 2009년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2007년 수형자의 사회복지와 처우 연계 “설문지”, 그리고 2011년에 실시된 미국의 “Youth Risk behavior Survey(YRBS)” 일부 문항, 그리고 2011년의 “Child and Adolescent Needs and Strengths(CANS)” 일부를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소년원 출원 후 소년이 겪게 되는 “transition crisis(과도기적 전이위기)”를 객관적인 소년욕구조사 도구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년 재범방지 및 소년처우 이념 실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달성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출원 후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년 “전이 서비스(transition service)”를 계획할 수 있고, 소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새로운 교정교육 내용 및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학교, 부모, 직업, 상담, 거주지, 약물 문제 등의 다양한 소년 재범유발 요인에 초점을

두어 구조화된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제한된 소년교정 경비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편익 검토 기반을 마련하고, 소년처우 개별화 측면에서 과학적인 연구 기반 “재범방지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박현수·정혜원, 2010). 구체적으로 소년원 퇴원 후 실태 및 욕구조사 파악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위험요인→욕구→장애요인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내용 개요도

제 2 장

청소년 리엔트리(Youth Reentry) 관련 이론

1. 청소년 리엔트리의 의의와 범위
2. 청소년 리엔트리 내용과 효과
3. 청소년 리엔트리 관련 연구

제 2 장

청소년 리엔트리(Youth Reentry) 관련 이론

1. 청소년 리엔트리의 의의와 범위

출원생 사후지도 서비스(aftercare service)는 범죄자가 시설 후 겪게 되는 전반적인 사회적응 준비과정 및 개입절차를 의미하는 재소자 리엔트리(reentry)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성인 출소자에게 적용되는 리엔트리 전략이 소년원을 퇴원하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바, 정확히 리엔트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념적으로 리엔트리라는 말은 한 개인이 특정 수용시설에서 사회로 되돌아오게 되는 과도기적 전이 국면(transition phase of community reentry)을 의미한다고 하겠다(Abrams, 2006). 과도기적 국면이란 말에 대해 출소 전 최소 한 달 전부터 출소 후 6개월 내 출소자 사회 재적응 과정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Altschuler & Brash, 2004). 달리 말하면, 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출소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critical time”으로 잡아 집중적인 사후감독, 지도,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회적응과 재범방지 효과를 이룬다는 전략이 리엔트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겠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10대라는 짧은 시기 동안 인생 전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교육을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친교활동을 통한 대인관계 경험을 쌓아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가장 급격한 성장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전영실·기광도, 2009; 주영신·이민창, 2008)). 즉, 청소년기의 구금경험은 다른 어떤 연령 시기보다 청소년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실제 소년원 수용으로 단절된 생활을 했던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퇴원 후에도 대인관계 형성력, 자기 확신감, 책임감 등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더 열등한 발달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teinberg, Chung, & Little, 2004; 최영신, 2002).

따라서 일반 성인 범죄자에 대한 리엔트리 철학보다 소년 리엔트리 전략에서는 더 세심한 원칙과 배려가 요구된다. 청소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욕구에 기초한 “청소년 리엔트리(reentry)” 전략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소년원에서 사회로 재진입하는 전이(transition) 과정을 청소년 교정정책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소년원 퇴원자에 대한 리엔트리는 건전한 사회 재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퇴원 전 서비스(pre-release services)와 퇴원 후 서비스(post-release services)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이다(Fields & Abrams, 2010).

단순히 퇴원 후 한 두 달 동안의 거주지 확보나 임시 취업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청소년 리엔트리는 구조화된 석방 사전, 사후의 서비스로써 장기간의 사회적응과 개별화된 원만한 사회적응을 목표로 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리엔트리 전략의 성공은 결국은 범죄자 개인의 욕구와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범죄자는 시설 출소 후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다(Rose & Clear, 2003). 다시 말해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리엔트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고, 원하는 방향도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 각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진정한 리엔트리의 성공은 소년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소년 리엔트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퇴원 후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향후 행동변화에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주로 “재범률”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사실 단순 재범률 이외에도 많은 다른 요소들이 리엔트리 효과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될 수 있고, 이중에서도 특히 리엔트리 효과성은 얼마나 소년원 퇴원 청소년이 특정 서비스 제공에 주관적인 만족감을 표시하느냐로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 질 수 있다.

성인 시설 출소자와 소년원 출원자가 리엔트리 기본 철학 측면에서 유사하기도 하지만, 분명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도 리엔트리 전략이 더욱 어렵고 복잡하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연구 고찰이 절실히 필요하다(Travis, Solomon, & Waul, 2001; Grisso & Schwartz, 2000).

소년사법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리엔트리 적용 범위는 상이할 수 있는데, 주로 청소년 후반기와 초기 성인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소년 리엔트리 철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 리엔트리 해당 연령이 보통 16세에서 24세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초기 성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Steinberg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소년법 내의 소년보호 근거 규정에서 찾으면서 동시에 소년원 퇴원생들을 기본적으로 소년보다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지칭하고, 소년원 퇴원생 사후지도 전략을 리엔트리 측면에서 고찰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리엔트리 절차가 일정기간의 구금 경험으로 인한 박탈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psychosocial development)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Abrams, 2006). 성인과 달리 소년원 수용 경험은 청소년에게 가정과 직장, 학교생활의 중단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성인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청소년기에 익히고 학습해야 할 특정 기술, 즉 관계형성, 자존감 형성, 미래 준비의식 등과 같은 특성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음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큰 타격을 받았음을 의미한다(Moffit, 1993).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청소년 리엔트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발달과정 상의 장애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청소년은 소년원 이전 때의 상황보다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비공식적 낙인으로 인해 학교 재적응이나 취업 상황에서도 불이익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리엔트리는 시설수용 퇴원 청소년이 처한 이런 “이중적 난관”을 모두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만 성공적인 청소년 재범방지 효과와 연결될 수 있다.

2. 청소년 리엔트리의 내용과 효과

보통 청소년 리엔트리 준비과정은 소년원 퇴원 전 최소 30일(또는 60일)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퇴원 후 6개월까지는 집중지도 및 보호원조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출원 전부터 구조화된 준비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짧은 기간 내에 출원 후 사회에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없고, 적응 도중에 다시 재범 등의 문제로 시설에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Mears & Travis, 2004).

실제, 퇴원 후 첫 6개월이 재범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퇴원 청소년이 복학이나 구직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Bullis & Yovanoff, 2002). 결국 청소년 리엔트리 내용은 소년원 학교시설과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효과적인 지원 서비스 전반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내용이 리엔트리 활동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7가지 범주에는 가족갈등, 교우관계 재형성, 심리적·신체적 건강문제, 학업단절, 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제한, 약물남용, 여가활동 부족이 포함된다(Altschuler & Brash, 2004). 최근의 청소년 리엔트리 연구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다양한 형태의 “부모치료 요법”이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Abrams & Snyder, 2009).

또한, 리엔트리 성공 내용으로 퇴원 후 청소년을 문제가정이나 빈곤가정으로 바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독립된 성인의 한 개체로 청소년을 인정하여 그들에게 혼자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성인의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원조해주고, 곁에서 힘들 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적절한 멘토를 연결해주며, 학교복학이나 취업연계를 알선해 주거나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범억제 전략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Spencer & Jones-Waler, 2004).

반면, 가족관계, 교우관계, 비공식적 지원 네트워크와의 관계개선 등이 가장 중요한 리엔트리 성공요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Smith, Lizotte, Thornberry, & Krohn, 1994). 특히 이 중에서도 교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행교우와의 접촉을 완전히 포기하고, 만약 퇴원 후 청소년이 보통 건전한 청소년과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재범방지에 성공하여 효과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Tolis, Bullis, Waintrup, Shultz, & Abrosio, 2001).

3. 청소년 리엔트리 관련 연구

비행청소년이 소년원 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다양한 교과교육과 체험활동, 상담교정 프로그램 등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나, 퇴원 후 사회에 적응을 시작하면 분명 일반 정상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도나 구직활동 면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Fields & Abrams, 2010). 소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에 재적응하고, 취업활동을 하는데 왜곡된 사회적 오명(social stigma)으로 남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Mears & Travis, 2004).

비공식적 낙인에 의한 주위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문제지만, 일반 청소년보다 시설수용 퇴원자들이 구금 이후 사회적 기대요구나 책임완수에 충분한 능력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20대 초반부터 사회 낙오자로서 성인 초기기를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Abrams, 2006). 경제, 사회 환경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10대 청소년기를 수용·보호시설에서 보낸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하면 시설수용 청소년의 사회 성공확률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Osgood et al., 2005).

만약, 퇴원 후 학업 중퇴 상황에서 부모의 훈육의지마저 충분치 않다면, 청소년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 미국 오레곤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퇴원 후 1년 이내 전체 퇴원자의 40%가 시설로 다시 돌아오고, 단 31%만이 사회에서 복학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llis & Yovanoff, 2002).

그리고 리엔트리 기간에 시설을 나온 청소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안정적인 거주 공간(housing)이라고 할 수 있다. 가출경험이 많고, 부모가 빈곤한 상태에서 주거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퇴원 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퇴원 후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는 청소년의 약 40%–60%는 건강 이상과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Altschuler & Brash, 2004).

이와 같이 소년원 퇴원 직후에 경험하는 청소년의 현실은 성인 초기까지 계속되는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재범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종단 추적연구 결과에 따르면, 빈곤가정, 부모 훈육기술 부족, 가족갈등 악화, 교육수준 저하, 취업기회 제한, 주거부정, 가출 등의 문제가 재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ullis, Yovanoff, & Havel, 2004; Snyder & Sickmund, 2006).

결국, 소년원 등의 수용·보호시설 이후 청소년이 사회에서 초기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재범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Mears & Travis, 2004; Spencer & Jones-Walder, 2004). 미국 보건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과도기적 전이 서비스(transition service)가 리엔트리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¹⁾. 가출소자들의 2/3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 대다수가 출소 후 최초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고, 부모들은 적절한 부모-자녀 관계형성 기술이나 훈육방법 조차 모르고 있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취업기술을 배워야 하나, 학업성적도 좋지 않고 중퇴 경험으로 인해 완전히 학업에 흥미를 잃고 자신감도 부족한 상황이다(Fields & Abrams, 2010; Steinberg et al., 2004).

미국에서는 청소년 리엔트리의 일환으로 집중 사후지도 프로그램(Intensive Aftercare Program, IAP) 모델이 개발되어 연방 차원에서 재범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막대한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퇴원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리엔트리를 돕기 위해 3천 1백만 달러의 “Young Offender Initiative”가 미국 각 주에서 시행되었고,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고위험 폭력 범죄자들을 위한 “Serious and Violence Offender Reentry Initiative”가 시행되었다(U.S. Department of Labor, 2003; Office of Justice Programs, 2002)

뒤의 제 6장을 통해 미국의 IAP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리엔트리

1) <http://www.cdc.gov/idu/facts/cj-transition.pdf> (최종검색 2011년 10월 10일)

기간에 출소 준비부터 이후 초기 사회 적응까지의 청소년 사후지도를 돕기 위해 개발된 구조화된 시설내-지역사회 연결 지원 서비스 연속체(continuum)를 말한다고 하겠다(Altshuler & Armstrong, 2002). IAP 모델은 무엇보다도 퇴원 후 청소년이 받아야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조하고, 개별화된 청소년의 욕구, 시설 단계에서의 리엔트리 준비과정 구조화를 강조한다. 또한 개인 별 재범 위험상황에 따라 감독 및 모니터링 수준을 조절해 나가는 것도 IAP의 중요한 특징이다. 1987년 미국의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즉 “청소년 사법 및 비행 예방국”이 IAP 모델을 실시, 평가한 이래로 그 효과성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발표되었다(Abrams, Shannon, & Sangalang, 2008; 김지선, 2004). 최근까지도 IAP 모델이 퇴원 청소년에게 제공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리엔트리가 이루어지고, 재범발생 가능성이 훨씬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ouffard & Bergseth, 2008; Altshuler & Armstrong, 2004).

그러나 모든 IAP 효과성 평가 연구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뉴욕에서 실시한 IAP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재범률 측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집중 사후지도가 전체 범죄감소에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rederick & Roy, 2003). 덴버와 라스베가스, 버지니아 등의 IAP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도 각각의 모델들이 퇴원 후 재범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Wiebush, Wagner, McNulty, Wang, & Le, 2005).

여기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본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느냐가 리엔트리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입장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Rose & Clear, 2003). 즉, 이것은 청소년이 부정적인 자아관념을 갖고 있고, 사회에서 자신을 손가락질 할 것이라고 인식하며, 퇴원 후의 생활을 두려워할수록 청소년을 결국 자신을 타인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채 결국 사회의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소년원 퇴원 후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가 소년원에서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내면에서는 출소 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회로 “밀려 나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최옥채 · 이정미, 2006; 이정미, 2007). 비행청소년들의 소년원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자유가 없는 규칙적인 단체 생활 속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청소년들은 외부 자유 세상을 미화하고 특히 자신이 처한 가혹한 외부현실, 특히 가정의 빈곤과 역기능적인 가족갈등 문제들을 합리화하는 기제를 보인다(정혜원, 2002).

청소년에 대한 각종 소년원(또는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이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청소년이 서비스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통해 어떤 자신감과 균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느냐가 성공적인 리엔트리의 관건이라 하겠다(Fields & Abrams, 2010).

제 3 장

소년원 출원생 생활실태 조사

1. 출원생 사후지도 배경 실태
2. 출원생 생활실태 조사 방법
3. 출원생 위험요인

제 3 장

소년원 출원생 생활실태 조사

1. 출원생 사후지도 배경 실태

1) 사후지도 배경 및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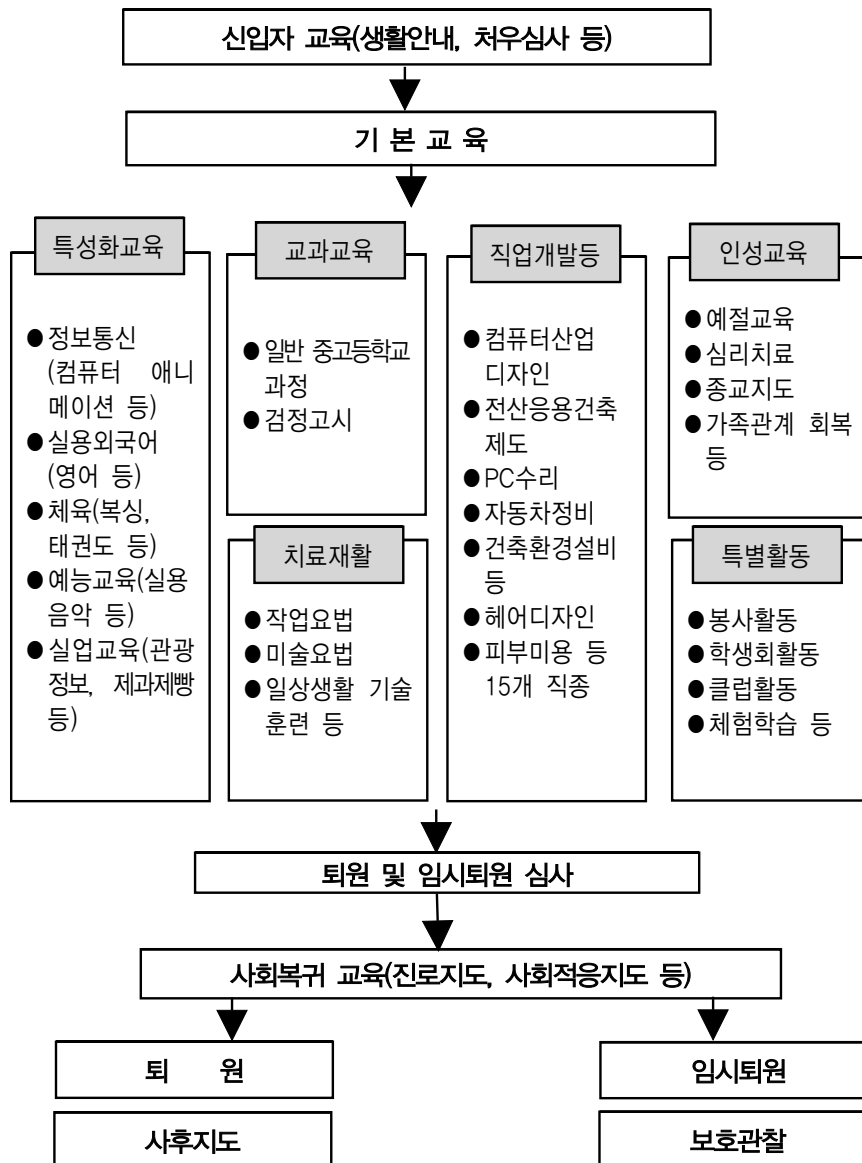
사후지도(aftercare) 서비스는 청소년이 시설에서 퇴원하기 전부터 소년원 내에서 체계적으로 준비과정을 거쳐야 그 효과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llow & Christian, 2008). 특히, Brown(2004)에 따르면 범죄자가 일정기간을 시설에서 보낸 후 출소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최초 90일 동안이고, 출소 후 그 기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적절히 파악하여, 그 개별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성공적인 리엔트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개별 욕구파악과 서비스 제공은 출소 전부터 구조화된 리엔트리 모델을 통해 사전에 준비될 때 재범억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위탁소년의 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 결정서에 의하고, 성적양호자의 임시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겠다. 소년원 출원을 퇴원과 임시퇴원으로 나누어 보면, 결국 퇴원은 9호의 경우 6개월, 10호의 경우에는 24개월에 도달한 경우를 말하고, 임시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허가에 의해 6개월에서 2년 이내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사후지도” 규정에 의거, 소년원 원장이 보호소년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본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임의적 사후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로 취업알선 등의 개별 사후지도 활동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대부분 임시퇴원생이 아닌 형기 만료 퇴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그림 2 참조).

퇴원 예정자를 위한 사회재적응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인 사회복귀 교육이 있고 여기에는 진로지도, 정신교육, 예절지도, 현장학습, 사회봉사활동, 각종 정보제공 등 다양한 개별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신소정, 2008). 1~2일 정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 구성원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가정관”도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무의탁 학생 등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그룹홈”도 소년원 퇴원자들을 위한 사후지도 프로그램에 속한다.²⁾



【그림 2】 소년원 처우 절차

2) http://www.moj.go.kr/HP/TSPB/spb_60/spb_602030.jsp (2011년 10월 10일 최종확인)

평상 시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 인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터특성화교육 등이 모두 원활한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하나의 큰 퇴원 준비과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안선영·김지희, 2010). 또한, 사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무의탁원생을 위한 사후보호, 법무보호공단 서비스 등이 퇴원 후의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임의적 사후지도 방침으로 인해, 실제 사회에서 사후지도 방침에 불응하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임의적 사후지도 효과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김순석, 2009; 김지선, 2004).

이와 달리 임시퇴원 청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을 통한 강제적 사후지도가 가능하다. 임시퇴원이란 동법 제44조의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조기퇴원 조치를 말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전제로 어느 정도 강제적인 사후지도 서비스 참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보호관찰관이 임시퇴원 전에 “보호관찰교육”을 미리 실시하여 사회로 처음 돌아왔을 때 부적응 문제로 인해 다시 소년원에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엔트리 준비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후지도 내용 및 실태

최근의 소년원 보호·수용 인원 현황과 출원인원, 취업·자립 지원 활동 실태를 먼저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일평균 수용인원이 약 1,500여명임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이 중 보호소년 일일평균 수용인원은 1,16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위탁소년은 419명임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소년원 수용인원 일일평균 추세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일일 평균	계	1,502	1,590	1,581	0
	보호소년	1,161	1,191	1,162	1,198
	위탁소년	341	399	419	421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2011년 8월말 기준)

다음으로 출원인원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퇴원인원이 5,530명이고 그 중 임시퇴원은 3,348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해당사유로 소년원을 출원한 경우는 210명인데, 이것은 주로 처분변경·취소에 해당하거나, 이탈,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위탁소년 출원인원은 총 21,945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자료는 현재 8월말까지의 통계 자료이므로 향후 연말까지 그 증가추이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표 2 소년원 출원 인원 추세

(단위: 명)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보호 소년	퇴원	5,530	871	1,719	1,821	1,119
	임시퇴원	3,348	857	951	934	606
	기타	210	52	59	65	34
위탁소년	출원	21,945	5,549	6,113	6,164	4,119
퇴원연기		218	68	39	65	46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2011년 8월말 기준)

소년원에 대한 “취업 및 자립지원” 활동 부분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중 “1:1 결연”이 1,902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 현장실습”이 1,546명으로 두 번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멘토링 결연은 1,289명이 참가했고, 취업알선은 4년 동안 총 1,160명이 혜택을 보았다(표 3 참조).

표 3 취업 및 자립지원 추세

(단위: 명)

구분 연도	취업지원				가족찾기	1:1 결연	멘토링 1:1 결연
	취업 (알선)	구인업체 방문	취업 후견인	산업체 현장실습			
계	1,160	882	630	1,546	173	1,902	1,289
2008	339	269	152	271	48	592	—
2009	335	255	192	275	50	606	—
2010	328	252	173	415	47	549	—
2011	158	106	113	585	28	155	1,289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2011년 8월말 기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년원 사후지도 및 자립생활관” 이용 실적을 보면, 통신에 의한 사후지도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방문에 의한 사후지도가 153명이고, 출석에 의한 사후지도가 108명이었으나, 통신에 의한 사후지도는 무려 2,339명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인원은 2008년에 247명, 2009년은 217명이었다가 2010년 19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사후지도 및 자립생활관 이용

(단위: 명)

연도	구분	사후지도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인원
		방문	출석	통신	
2008		237	169	3,309	247
2009		179	123	2,483	217
2010		153	108	2,339	190
2011		65	73	1,649	94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2011년 8월말 기준)

가출소년, 무의탁 출원생, 생계곤란 청소년 등을 위한 그룹홈(group home) 형태의 생활관은 일탈과 비행 예방하고,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자립지원 시스템으로 2011년 8월 기준 의왕 시설의 휴관을 제외한 총 7개 시설이 운영 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법무부 산하 청소년 비행예방과 비행소년의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세워진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인원의 대다수인 54명이 소년원 출원자들이고, 다음으로 일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자 현황

(단위: 명)

시 설	계	소년원 출 원	보호관찰 대 상	일 반 청소년	기타
총 계	93	54	12	25	2
의 왕	0	0	0	0	0
대 전	10	8	2	0	0
광 주	14	10	1	3	0
부 산	7	5	1	1	0
대 구	18	6	6	5	1
안 양	30	13	0	16	1
전 주	6	6	0	0	0
춘 천	8	6	2	0	0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2011년 8월말 기준)

※ 입주자 현황은 2011년 1월~8월까지의 신규입주자 수를 기준으로 함.

이제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소년원 퇴원자들을 위한 사회정착 실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퇴원생 현황을 보면, 2010년 하반기 내 우리나라 소년원 퇴원생이 총 119명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학업연계 계획으로 퇴원한 학생은 69명이고, 12명은 취업 학생으로, 그리고 나머지 38명은 기타 이유로 소년원에서 퇴원하였다(표 6참조). 비율 측면에서 보면, 학업연계가 퇴원자 전체의 5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기타 사유가 31.9%, 취업 퇴원이 전체의 10.1%에 해당한다 하겠다. 기타 사유에는 김정고시, 진로탐색, 병원진료, 군입대 등의 사유가 포함된다.

표 6 퇴원 학생 사회정착 내용 별 현황(2010. 06~2010. 12)

구 분	계	학업연계	취 업	기 타
인 원	119	69	12	38
비 율(%)	100	58.0	10.1	31.9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

소년원 퇴원생 대다수가 복학 등을 목표로 시설을 나서지만, 결국 실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전체의 33.3%에 불과했다(표 7 참조). 나머지 66.7%에 해당하는 46명이 학업중단으로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 대다수의 실패사유는 “재비행”이라고 하겠다. 퇴원 후 복학을 목표로 했던 69명의 청소년 중 약 40%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결국 사회에서 재범을 저질러 사회복귀에 실패한 것이다.

표 7 학업연계 퇴원생의 사후 적응 실태(2010. 06~2010. 12)

구분	계	학업 계속	학 업 중 단							연락 두절
			소 계	검정 고시	진로 탐색	취 업	가 출	재비행	기타	
인 원	69	23	46	6	4	6	0	27	3	0
비 율	100	33.3	66.7	8.7	5.8	8.7	0	39.1	4.3	0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

다음으로 전체 퇴원생 중 취업생으로 소년원을 나간 12명을 보면, 실제로 재직 중인 소년은 단 1명뿐이고, 재비행이 7명이나 됨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결국 취업 학생의 58.3%가 재범으로 인해 원래의 사회정착 및 복귀 계획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표 8 취업 퇴원생의 사후 적응 실태(2010. 06~2010. 12)

구분	계	재 직 중			무 직				군 입대	연락 두절
		소계	초기직장	재취업	소계	진학	재비행	기타		
인 원	12	1	0	1	11	1	7	3	0	0
비 율	100	8.3	0	8.3	91.7	8.3	58.3	25.0	0	0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로 시설을 퇴원한 청소년들의 사후 적응 현황을 보면, 2010년 하반기 동안 전체 38명 중 취업이 5명(13.2%), 군입대가 4명(10.5%), 검정고시 5명(13.2%), 그리고 진로탐색이 9명(23.7%)이었다. 여기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퇴원생 재비행으로, 전체의 39.5%에 해당하는 15명이 재범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기타 퇴원생의 사후 적응 실태(2010. 06~2010. 12)

구분	계	검정 고시	진로 탐색	병원 진료	진학	취업	군입대	재비행	연락 두절
인 원	38	5	9	0	0	5	4	15	0
비 율	100	13.2	23.7	0	0	13.2	10.5	39.5	0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내부자료

2. 출원생 생활실태 조사 방법

1) 자료수집과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소년원 출원생의 퇴원 후 약 6개월 동안의 생활실태 및 개별욕구를 조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원래는 소년원 일반 퇴원생과 임시퇴원생을 설문 조사대상으로 모두 포함해야 하나, 그 조사 대상이 퇴원 후 6개월 전후의 청소년이라는 연구의도에 따라 특히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임시퇴원생들에 초점을 두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미 모든 공식적 소년원 수용기간을 마치고, 시설을 나간 청소년들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개인동의 없이 연락처를 활용한다는 것도 연구윤리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호관찰소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임시퇴원생들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본 연구 참여가 익명성을 전제로 한 자발적 참여임을 고지했기 때문에 연구 윤리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보호관찰 없이 임의적 사후지도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소수의 '제한된 특성'의 일부 퇴원생만 조사하게 되면, 표본 오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으로 오직 임시퇴원 조치된 비행청소년만을 조사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었고,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임시퇴원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국 보호관찰소에 응답 대상 청소년을 임시퇴원 후 6개월 전후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으로 한정하도록 하였고, 법무부 소년과의 도움을 받아 설문대상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첫 면에 청소년의 솔직한 설문 답변이 향후 청소년이 받게 되는 잔여 보호관찰 감독기간 및 신병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고지하였다(부록 참조).

소년원 퇴원자들의 생활실태 부분은 크게 청소년이 가진 (1)위험요인과 (2)비행행위 수준, (3)감독정도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퇴원 후의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이 원래부터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내재된 위험요인(risk factors)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①경찰체포 전과, ②소년원 전과, ③최초 체포연령, ④가족수입, ⑤흡연/음주 등, ⑥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비행행위를 통해 퇴원자들의 생활실태와 사후 재비행 정도를 검토할 것이다.³⁾ 감독정도는 임시퇴원자들이 필요적 보호관찰 상황에서 보호관찰 감독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3명의 소년원 퇴원 청소년들의 기본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연령에서는 18세가 전체의 30.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세가 26.0%, 17세가 15.7%를 차지하여 18세>19세>17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24명으로 전체의 10.8%에 불과하였다(표 10참조). 이처럼 소년원 퇴원자들이 주로 10대 후반기 청소년들로 20대 초기 성인기에 진입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구조를 보면 전체 소년원 퇴원 표본 중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구조적 결손가족 하에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56.5%에 달했다. 즉, 절반 이상의 소년원 퇴원 청소년이 결손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재혼한 경우도 “결혼가정”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이혼 등의 결손가정 상황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실제 역기능적 가족관계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겠다.

셋째, 성별을 살펴보면 임시퇴원으로 사회에 나온 전체 223명 중 결측값 2명을 제외하고 33명이 여자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88명(84.3%)이 남자 비행청소년으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학력 요인에서는 중학교 졸업 비율이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전체의 22.0%에 해당하였다. 또한, 중학교 재학생(8.1%)과 고등학교 재학생(14.3%)을 제외한 중퇴 상황 하의 청소년이 전체의 18.8%에 달했다. 응답자의 연령이 17-19세에 집중되어 있어, 중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다수의 퇴원 청소년이 고등학교

3) 비행행위는 특별히 퇴원 후의 발생한 경미한 비행과 중대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 전영실·기광도의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연구서의 일부 문항을 활용하였다.

복학 및 졸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원 이후에도 고등학교 중퇴 상태로 남아있는 비율이 전체의 15.2%(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세 이하 연령이 전체 응답자의 약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상태로 남아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30.9%에 이르렀다. 정규 고등학교 진학조차 하지 못하고 취업이나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절도사범이 전체의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전체의 23.3%로 많게 나타났다. 성범죄사범 청소년 비율은 전체의 1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강도를 하나로 보아 폭력사범으로 분류하면 그 비율이 전체의 14.3%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범죄유형 별로 보면 절도사범(30.9%)>보호관찰법위반(23.3%)>성범죄사범(17.0%)>폭력사범(14.3%)>기타사범(7.6%) 순으로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표 10 기본 인구사회학적 특징

	범주	빈도	퍼센트(%)
연령	16세 이하	24	10.8
	17세	35	15.7
	18세	68	30.5
	19세	58	26.0
	20세 이상	36	16.1
	결측값	2	0.9
	합계	223	100
가족 구조	결혼(재혼포함)	93	41.7
	이혼(사별포함)	126	56.5
	결측값	4	1.8
	합계	223	100
성별	남자	188	84.3
	여자	33	14.8
	결측값	2	0.9
	합계	223	100

	범주	빈도	퍼센트(%)
학력 수준	초졸	1	0.4
	중학교중퇴	8	3.6
	중학교재학	18	8.1
	중졸	69	30.9
	고등학교중퇴	34	15.2
	고등학교재학	32	14.3
	고졸	49	22.0
	결측값	12	5.4
	합계	223	100
범죄 유형	절도	69	30.9
	폭행	25	11.2
	강도	7	3.1
	성범죄	38	17.0
	보호관찰위반	52	23.3
	기타	17	7.6
	결측값	15	6.7
	합계	223	100

3. 출원생 위험요인

1) 경찰체포 전과

소년원 퇴원 청소년을 상대로 본 사건 이전에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몇 번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없는 “초범”이 전체의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측값 7.6%를 제외하고, 전체의 약 73%는 본 건 이전에 1회 이상의 경찰 체포경험이 있는 비행 전과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체포 자체만으로 “전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의 경우 지위비행

등과 같은 사소한 경찰 주의, 지도, 다이버전 조치도 형사사법 기관과의 접촉경험으로 간주할 수 있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수차례 이미 경찰단계에서 훈방 조치된 경력을 갖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사랑의 교실’과 같은 전환 프로그램을 이미 경험했다면, 퇴원 후 이들에 대한 사후지도 역시 그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개별적·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1 경찰체포 전과

	빈도	퍼센트(%)
경험없음(0회)	43	19.3
1-2회	58	26.0
3-4회	56	25.1
5회이상	49	22.0
결측값	17	7.6
합 계	223	100

2) 소년원 전과

본 사건 이전의 소년원 전과경력도 전체의 26.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퇴원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약 1/4 정도가 이미 그 이전에 소년원 구금 경력이 있는 보호처분 전과자인 것이다. 상습성이 내재된 고위험 청소년에게 유사한 교정 프로그램과 감독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고 사후지도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2 소년원 구금전과

	빈도	퍼센트(%)
이전 소년원 구금 있음	60	26.9
이전 소년원 구금 없음	156	70.0
결측값	7	3.1
합 계	223	100

3) 최초 체포연령

14세 이전에 이미 경찰 체포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비행행위가 어린 나이에 시작되어 훈방조치 또는 다른 사회내처분을 거쳐 시설내 소년원 수용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국 10대 초반부터 후반부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응답 청소년의 대다수가 17세 이상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52.2%)의 청소년이 16세 이전에 최초 비행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13 최초 체포연령 시기

	빈도	퍼센트(%)
13세이하	25	11.2
14세	41	18.4
15세	39	17.5
16세	34	15.2
17세	37	16.6
18세이상	15	6.7
결측값	32	14.3
합 계	223	100

4) 가족수입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가족의 총수입액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청소년 개인이 느끼는 가정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대략적인 가족수입 총 액수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다. 가족수입 액수에서는 전체의 15.7%가 가족 수입이 약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도 전체의 20.6%에 달해 결국 퇴원 청소년의 약 35% 정도가 어려운 가족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변수는 예상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정확한 가족수입액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측값이 전체의 40.8%에 이르렀다. 많은 청소년이 가족 수입액을 적지 않아 정확한 퇴원 청소년의

가정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고 하겠다.⁴⁾

표 14 가족 월수입 정도

	빈도	퍼센트(%)
100만원이하	35	15.7
100만원초과 200만원이하	46	20.6
2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21	9.4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23	10.3
500만원초과	7	3.1
결측값	91	40.8
합 계	223	100

5) 흡연 · 음주 등

흡연 및 음주경험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 청소년의 약 9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청소년기의 과도한 흡연과 잘못된 음주습관은 성장기 장애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사후지도 및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출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1%가 “경험 있음”이라고 답해, 이미 대다수의 비행청소년들이 소년원 경험 이전부터 가정을 떠나 혼자 살거나, 친구들과 혼숙을 했던 주거부정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유경험자가 가족갈등 상황에 처하면 쉽게 다시 가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별 사후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4)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자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소년원 퇴원 당시 소지한 돈 액수”를 추가적으로 물어보았다.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소년이라면, 최소한의 교통비나 식사비 정도는 갖고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8%에 해당하였다.

	빈도	퍼센트(%)
소지한 돈 없음(0원)	115	51.6
1만원 이하	40	17.9
1만원 초과-5만원 이하	25	11.2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15	6.7
10만원 초과	23	10.3
결측값	5	2.2
합 계	223	100

표 15 흡연·음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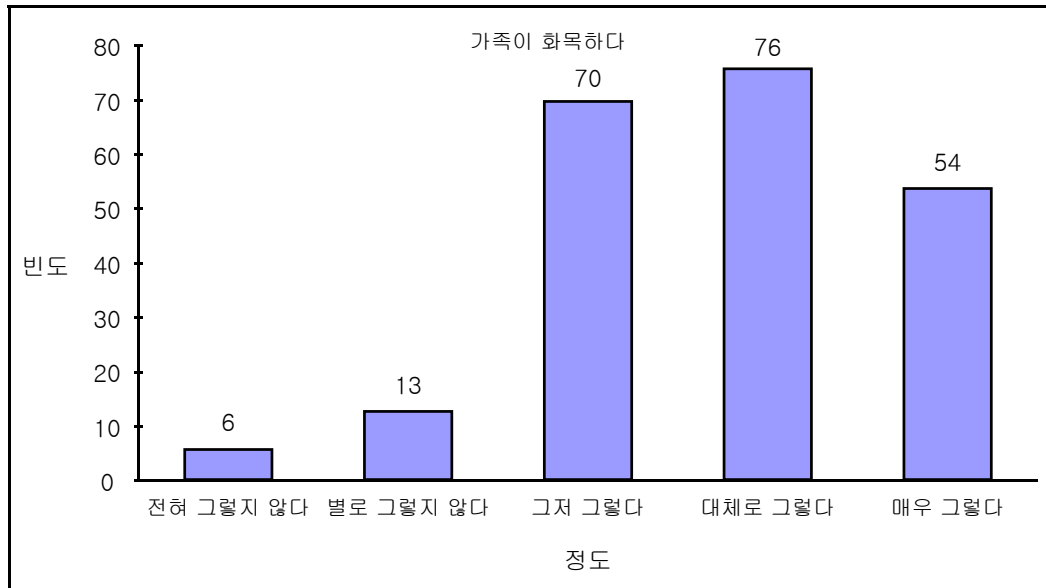
	빈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결측값	합계
흡연/음주	201(90.1)	20(9.0)	2(0.9)	223(100)
가출	163(73.1)	58(26.0)	2(0.9)	223(100)
자살시도	17(7.6)	203(91.0)	3(1.3)	223(100)
문신	69(30.9)	152(68.2)	2(0.9)	223(100)
성경험	102(45.7)	118(52.9)	3(1.3)	223(100)

자살시도 경험에 대해서는 퇴원 청소년들 전체의 7.6%가 “경험 있음”에 표기하여, 일부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퇴원 경험이 자살시도 당시의 우울증 상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퇴원 후에 다시 문제 상황에 되돌아가 그 정서적 위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상담, 치료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5.7%가 지금까지 성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52.9%에 달했다. 퇴원생 10대 청소년들 절반 정도가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증 문제나 경제적 이유, 또는 수치심으로 성병 관련 치료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당사자나 보호자가 모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기술, 남녀 성역할 인지치료, 안전한 피임방법 교육 등 성병 예방 교육에 대한 사후지도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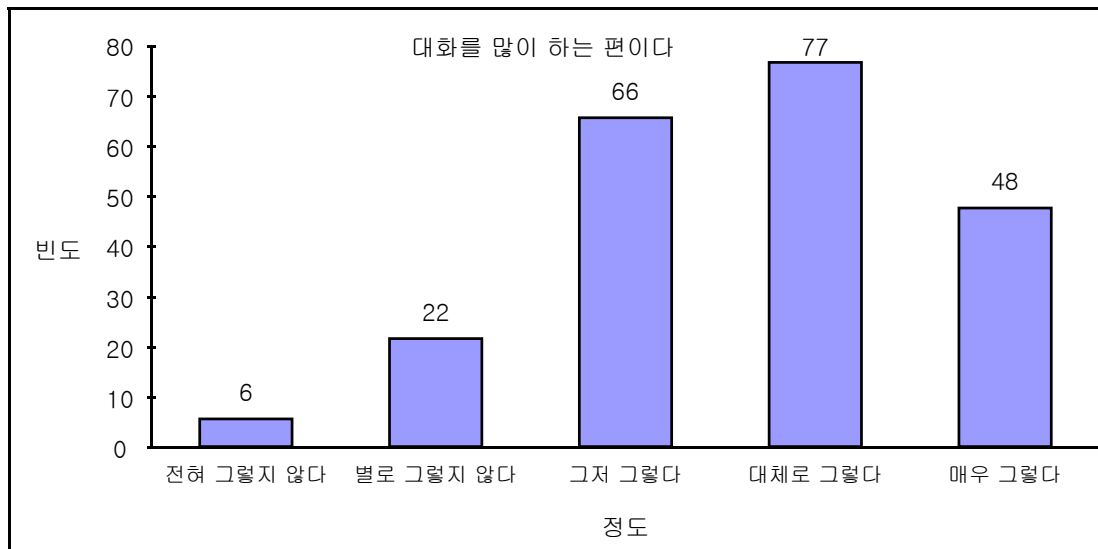
6) 부모-자녀 관계

소년원 퇴원자들의 생활실태를 부모-자녀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5점 척도를 이용해 현재 본인의 가족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우리 가족은 화목한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의 58.2%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 가족 분위기에서는 절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답변을 보인 청소년은 19명으로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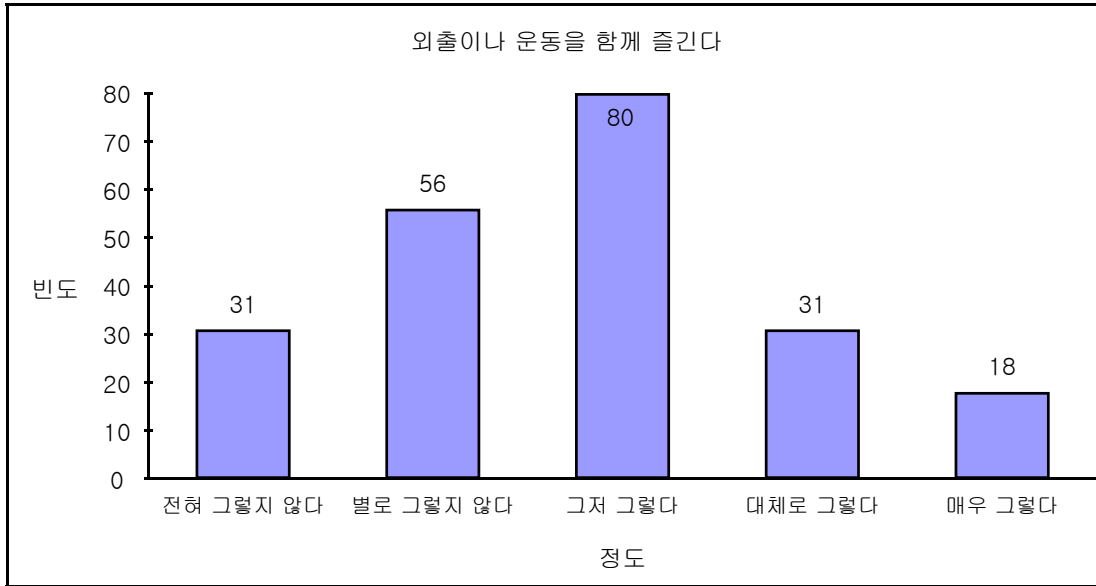
【그림 3】 가족화목 정도

다음으로 가족대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소년원 퇴원 청소년들 115명(76.0%)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 대다수가 전반적으로 가족 대화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전체의 29.6%에 해당하였고, 부정적인 의견의 전체 응답 청소년의 12.6%에 해당하였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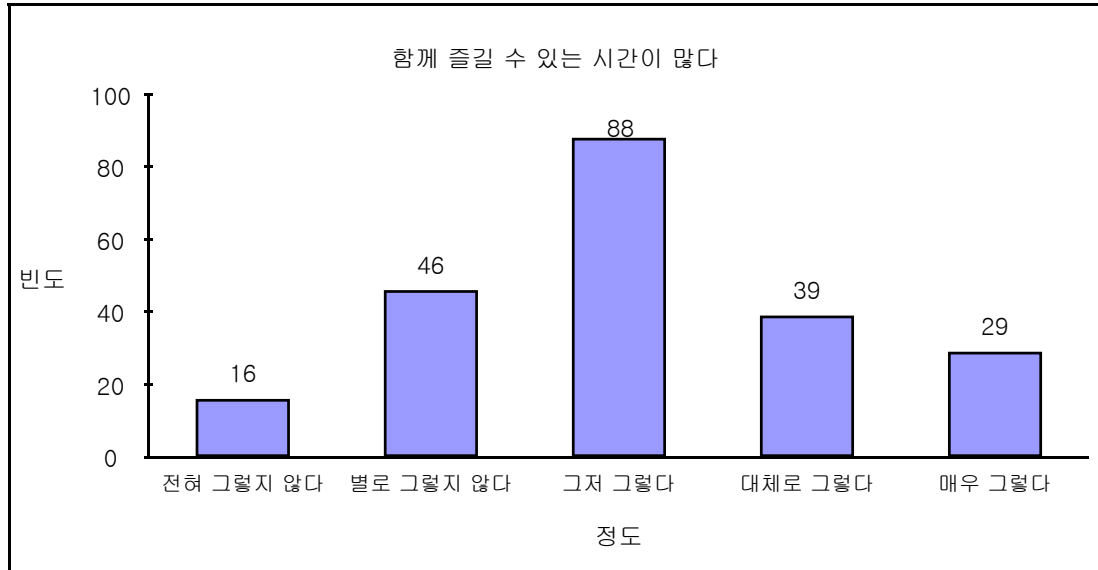
【그림 4】 가족대화 정도

실제 가족이 외출이나 운동을 어느 정도 함께 하는지 묻은 결과, 퇴원 청소년의 35.9%가 “그저 그렇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의 가족화목이나 대화정도와 달리, 여기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태도가 전체의 39.1%(87명)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긍정적인 입장은 전체의 22.0%(49명)에 불과하였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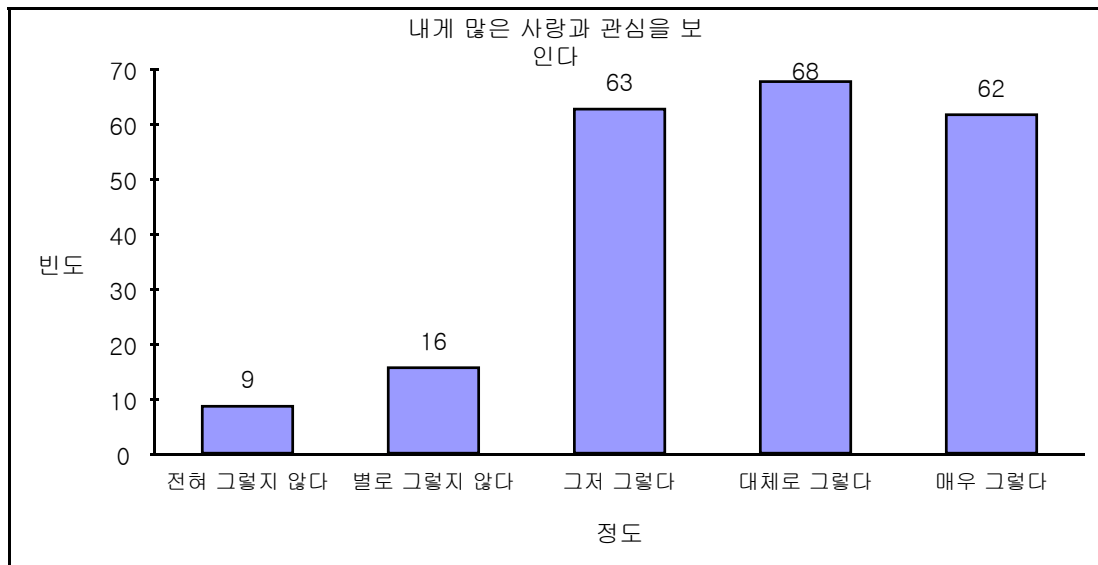
【그림 5】 가족 외출·운동 동참 정도

청소년들에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물어보았다. 여기에서도 “그저 그렇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39.5%).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태도는 62명으로 전체 응답 청소년의 27.8%를 차지했다.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는 긍정적 답변은 68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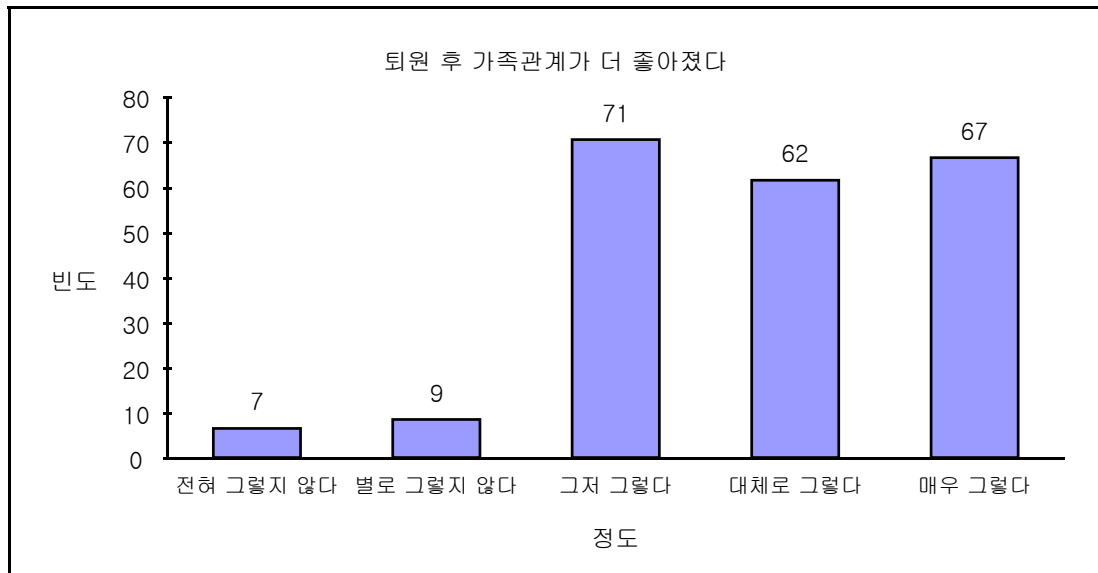
【그림 6】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부모-관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년원 퇴원 후 보호자가 충분히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다. 매우 그렇다가 62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였고, 대체로 그렇다가 68명으로 30.5%를 차지하여 전체의 절반이 넘는 58.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그림 7 참조).



【그림 7】 부모의 사랑과 관심 정도

퇴원 후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입원 전보다 좋아졌는지, 혹은 더 나빠졌는지 확인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생활실태 이해 항목이라 하겠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족관계 개선 정도를 물었더니, “매우 그렇다”가 67명으로 전체의 30.0%에 해당하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가 전체의 62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였다(그림 8 참조). 결국,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청소년이 절반을 넘어서는 전체의 57.8%에 이른다고 하겠다(그림 8 참조).



【그림 8】 퇴원 후 가족관계 개선정도

이번에는 생활실태 내 부모-가족 관계 요인을 부모학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맞았다”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15.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

둘째,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맞았다”는 문항에서도 역시 응답자의 16.9%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정없이 마구 맞았다”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9.7%가 “경험 있음”의 답변을 보였다.

넷째, 세계 밀침을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10.3%에 해당하였고, 던진 물건에 청소년이 맞은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7.1%에 해당하였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9명으로 전체의 3.9%에 해당하였다. 또한, 다락이라 골방 등에 갇히는 경우가 전체의 3.0%에 해당하였다.

다섯째, 언어적 폭력은 욕을 듣는 경우가 전체의 16.5%에 해당하였고, ‘나가 죽어라’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전체의 13.0%에 해당하였다.

표 16 보호자의 자녀 학대 정도

	빈도(%)			
	경험없음	경험있음	결측값	합계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맞음	183(82.1)	34(15.2)	2(0.9)	223(100)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맞음	180(80.7)	38(16.9)	5(2.2)	223(100)
사정없이 마구 맞음	194(87.0)	22(9.7)	7(3.1)	223(100)
세계 밀침	194(87.0)	23(10.3)	6(2.7)	223(100)
던진 물건에 맞음	200(89.7)	16(7.1)	7(3.1)	223(100)
칼이나 흉기로 위협	206(92.4)	9(3.9)	8(3.6)	223(100)
욕을 들음	179(80.3)	37(16.5)	7(3.1)	223(100)
다락, 골방, 창고에 가둠	208(93.3)	7(3.0)	8(3.6)	223(100)
나가죽어라 말함	184(82.5)	29(13.0)	10(4.5)	223(100)

4. 출원생 비행행위 수준

1) 경미한 비행행위

자기보고 비행행위 설문을 통해 실제 청소년이 퇴원 후 사회에서 저지르는 불건전한 행동 정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응답 청소년들에게 직접 소년원 퇴원 후 특정 비행행동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졌는지 물었다. 흡연, 음주, 가출, 학원폭력 등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비행행위 정도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7 참조).

첫째, 흡연은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학생이 전체의 19.7%였고, 담배를 피우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80%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주는 “전혀 없음”이 전체의 28.7%였고, 술을 마시는 청소년이 약 전체의 70%에 해당하였다. 7회 이상 술을 마셨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권닝은 85.7%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 12% 정도만 권닝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복학 또는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학생에 한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기에 그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겠다.

넷째, 가출의 경우 “전혀 없음”에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83.4%에 달했고, 14.8%는 소년원 퇴원 후 이미 가출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전체의 약 15%가 이미 가출을 시도해 사회에서 일정기간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17 경미한 비행행위(소년원 퇴원 후)

	빈도(%)						
	전혀 없음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결측	합계
흡연	44 (19.7)	33 (14.8)	24 (10.8)	8 (3.6)	110 (49.3)	4 (1.8)	223 (100)
음주	64 (28.7)	50 (22.4)	37 (16.6)	10 (4.5)	58 (26.0)	4 (1.8)	223 (100)
컨닝	191 (85.7)	16 (7.2)	5 (2.2)	1 (0.4)	5 (2.2)	5 (2.2)	223 (100)
무단결석	174 (78.0)	19 (8.5)	11 (4.9)	4 (1.8)	10 (4.5)	5 (2.2)	223 (100)
가출	186 (83.4)	17 (7.6)	8 (3.6)	0 (0.0)	8 (3.6)	4 (1.8)	223 (100)
음란동영상보기	175 (78.5)	28 (12.6)	6 (2.7)	5 (2.2)	4 (1.8)	5 (2.2)	223 (100)
거리에 침/쓰레기 버리기	85 (38.1)	49 (22.0)	35 (15.7)	9 (4.0)	41 (18.4)	4 (1.8)	223 (100)
거리,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기	129 (57.8)	42 (18.8)	22 (9.9)	4 (1.8)	21 (9.4)	5 (2.2)	223 (100)
무단횡단/교통질서 위반	113 (50.7)	51 (22.9)	22 (9.9)	8 (3.6)	25 (11.2)	4 (1.8)	223 (100)
일부러 학교물건 부수기	206 (92.4)	6 (2.7)	4 (1.8)	1 (0.4)	1 (0.4)	5 (2.2)	223 (100)
일부러 남의 집 물건에 흠집 내기	206 (92.4)	8 (3.6)	2 (0.9)	0 (0.0)	1 (0.4)	6 (2.7)	223 (100)
다른 친구들 괴롭히거나 왕따 시키기	206 (92.4)	10 (4.5)	1 (0.4)	1 (0.4)	1 (0.4)	4 (1.8)	223 (100)
돈 주고 성관계하기	209 (93.7)	8 (3.6)	0 (0.0)	1 (0.4)	1 (0.4)	4 (1.8)	223 (100)
돈 벌기 위해 성관계하기	215 (96.4)	2 (0.9)	0 (0.0)	1 (0.4)	1 (0.4)	4 (1.8)	223 (100)
이성친구와 성관계하기	215 (96.4)	13 (5.8)	9 (4.0)	3 (1.3)	10 (4.5)	4 (1.8)	223 (100)

다섯째, 음란 동영상 보기에서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8.5%이고, 전체의 19.3%가 시청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거리에 쓰레기 버리기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기, 그리고 무단횡단 등의 교통질서 위반에서는 각각 “전혀 없음”의 응답비율이 전체의 38.1%, 57.8%, 50.7%로 나타났다.

일곱째, 일부러 학교물건 부수기와 일부러 남의 집 물건 훔치기, 다른 친구 괴롭히기, 돈 주고 성관계하기, 돈 받고 성관계하기, 이성친구와 성관계하기에서는 각각 “전혀 없음”이라는 응답이 92.4%, 92.4%, 92.4%, 93.7%, 96.4%, 96.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 중대한 비행행위

중대한 비행행위에 해당하는 환각제 또는 본드 등의 약물사용을 살펴보면, 퇴원 후 전체의 93.3%가 “경험 없음”이라는 응답을 했고, 전체의 4.9%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표 18 참조).

표 18 중대한 비행행위(소년원 퇴원 후)

	빈도(%)						
	전혀 없음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결측	합계
환각제나 본드 약물사용하기	208 (93.3)	5 (2.2)	2 (0.9)	2 (0.9)	2 (0.9)	4 (1.8)	223 (100)
가게에서 슬쩍 물건 훔치기	205 (91.9)	11 (4.9)	0 (0.0)	0 (0.0)	3 (1.3)	4 (1.8)	223 (100)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205 (91.9)	5 (2.2)	5 (2.2)	1 (0.4)	2 (0.9)	5 (2.2)	223 (100)
타인을 심하게 때리기	204 (91.5)	10 (4.5)	2 (0.9)	0 (0.0)	3 (1.3)	4 (1.8)	223 (100)
타인을 흥기로 해치기	213 (93.5)	5 (2.2)	0 (0.0)	0 (0.0)	1 (0.4)	4 (1.8)	223 (100)
성폭행, 강간	213 (95.5)	4 (1.8)	0 (0.0)	1 (0.4)	1 (0.4)	4 (1.8)	223 (100)

가게에서 슬쩍 물건을 훔친 경험은 전체의 91.9%가 “없음”인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전체의 6.2%에 해당하였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우는 경험이 없는 비율이 전체의 91.9%에

해당하고, 경험이 있다고 말한 청소년은 전체의 5.7%에 해당하였다.

또한, 타인을 심하게 때린 폭력 비행행위는 전체의 6.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을 흥기로 해치는 행동과 성폭력 행동은 각각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출원생 보호관찰 감독

감독정도(supervision level) 차원에서 청소년 생활실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년원 입시퇴원 대상자의 경우 사회에서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므로 그 감독상황 역시 퇴원 청소년의 생활실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보호관찰관을 월 1회 정도 접촉한다고 말한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35.9%로 가장 많았고, 월 2회가 전체의 26.9%로 다음으로 많았다. 월 3회 이상은 전체의 12.6%였고, 4회 이상, 즉 한 주에 한 번 이상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20.2%에 해당하였다(표 19 참조).

표 19 보호관찰 감독정도

	빈도	퍼센트(%)
월1회	80	35.9
월2회	60	26.9
월3회	28	12.6
월4회	45	20.2
2개월에 1회	2	0.9
결측값	8	3.6
합 계	223	100

제 4 장

소년원 출원생 욕구(needs)조사

1. 출원생 욕구조사 항목 개요
2. 출원생 욕구 조사 분석

제 4 장

소년원 출원생 욕구(needs)조사

1. 욕구조사 항목 개요

서구에서 비행청소년이 갖고 있는 개별욕구를 조사하는 문항과 척도들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교육학이나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아동·청소년 기능평가(Child and Adolescent Functional Assessment Scale)” 문항은 정서적, 행동적, 약물사용 문제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하는 구조화된 도구라고 볼 수 있다(Hodges & Wong, 1997). 또한, 시카고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었던 “청소년 자기보고(Youth Self Report)” 문항은 청소년의 욕구지연성, 즉흥성 등 최근 6개월 동안의 정서적 특징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둔 도구이다(Earls, Brooks-Gunn, Raudenbush, & Sampson, 2002).

본 연구에서는 위 도구들이 사용한 일부문항을 차용하면서도, 소년원 퇴원 청소년의 리엔트리 특징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관련 욕구문항을 첨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1)주거문제, (2)학교 부적응, (3)취업곤란, (4)경제적 빈곤, (5)가족관계 갈등, (6)비행교우, (7)건강문제 해소라는 일곱 가지 측면에서 시설 퇴원 청소년의 개별욕구를 검토하였다. 이는 소년 리엔트리를 연구한 Altschuler와 Brash(2004)의 분류 문항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청소년 정서에 맞는 문항이 필요하기에, 일부 내용들은 우리나라 부산여성가족 개발원의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욕구조사(2008)” 일부에서 청소년 욕구조사 질문 표현 방법과 관련 단어들을 가져왔다.⁵⁾ 또한, 본 욕구조사 항목 부분에서는 성인 재소자들을 상대로 실시되었던 2007년 최영신 등의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논문의 일부 관련 설문문항도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5) 본 설문문항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양적자료 데이터 다운로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출처 자료번호는 A1-2008-00690이다.

2. 욕구조사 분석결과

소년원 퇴원 후 사회에서 비행청소년이 느끼는 개별욕구는 (1)주거문제와 (2)학교 부적응, (3)취업곤란, (4)경제적 빈곤, (5)가족관계 갈등, (6)비행교우, (7)건강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거문제

퇴원 청소년의 주거여건을 물어봤을 때 전체의 84.8%가 현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3.4%는 퇴원 후에 친척집, 친구집 또는 쉼터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표 20 현재 주거 상황

	빈도	퍼센트(%)
가족이 살고 있는 집	189	84.8
친척집	7	3.1
친구집	3	1.3
애인집	1	0.4
민간보호시설/법무보호복지공단	6	2.7
기타	13	5.8
결측값	4	1.8
합 계	223	100

2) 학교 부적응

장래 학업계획을 살펴보면, 소년원 퇴원 후 학교복학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23.8%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직 또는 취업준비로 전체의 37.7%에 해당하였다. 검정고시 준비는 42명으로 전체 응답 청소년의 18.8%를 차지하였다.

표 21 장래 학업계획 관련

	빈도	퍼센트(%)
학교복학	56	23.8
구직 또는 취업준비	84	37.7
검정고시 준비	42	18.8
계획 없음	7	3.1
기타	34	15.2
결측값	3	1.3
합 계	223	100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교복학 또는 검정고시와 같은 학업관련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청소년은 그 응답자의 약 절반(39명)에 해당하였다. 학교기피 이유에 대해 소년원 퇴원 청소년들은 “공부하기 싫어서”라는 설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표 22 학교기피 이유

	빈도	퍼센트(%)
경제적 지원 불충분	3	1.3
공부하기 싫어서	45	20.2
성적이 나빠서	2	0.9
선생님이 싫어서	6	2.7
친구와 사이가 나빠서	1	0.4
학교규칙에 얽매이기 싫어서	5	2.2
기타	6	2.7
결측값	155	69.5
합 계	223	100

3) 취업곤란

취업을 검토하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현 시기에 전체 응답자의 35.0%가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 자신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청소년도 전체의 13.0%에 달해 전업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48.0%에 이른다고 하겠다.

표 23 취업상황

	빈도	퍼센트(%)
학교복학	31	13.9
안정적인 직장(학업포기)	29	13.0
아르바이트하며 용돈벌이	78	35.0
하는 일없이 집에서 지냄(가끔 친구만남)	34	15.2
거의 매일 친구만남	4	1.8
검정고시, 자격증 공부	27	12.1
기타	16	7.2
결측값	4	1.8
합 계	2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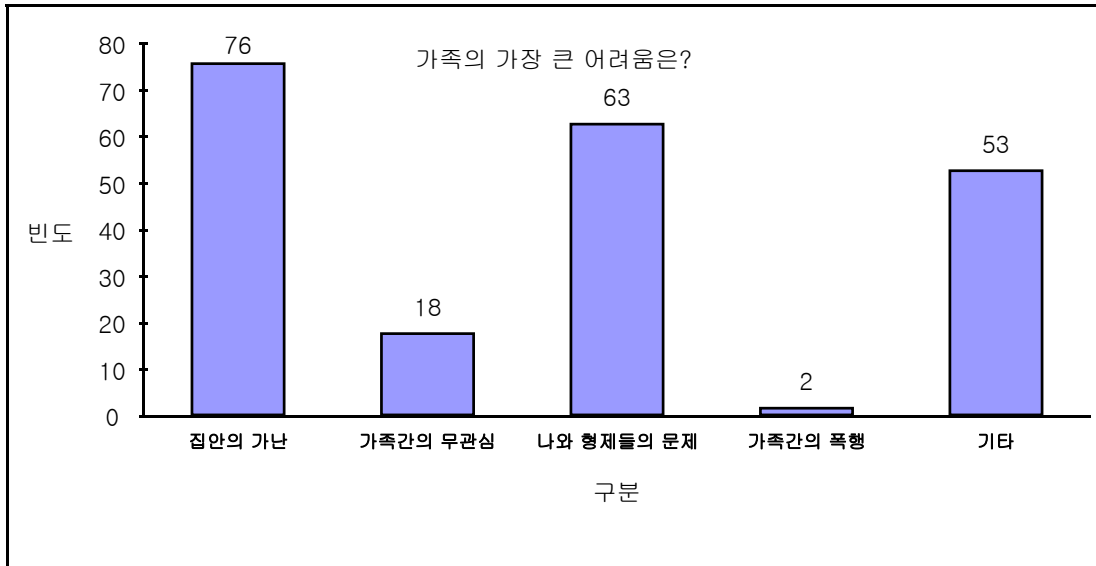
그러나 직장을 구하게 된 경로 대부분이 청소년이 광고 등을 통해 자력으로 구한 자리(64명)이고, 소년원 알선이나 보호관찰소 기관 알선은 4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취업 알선 사후지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취업알선 방법

	빈도	퍼센트(%)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음	74	33.2
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	24	10.8
친구나 선후배의 도움	31	13.9
소년원에서 알선	2	0.9
보호관찰소나 직업훈련소의 알선	2	0.9
내가 스스로 구함	64	28.7
결측값	26	11.7
합 계	223	100

4) 경제적 빈곤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76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집안의 가난”을 들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34.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다음으로 힘든 가족의 어려움은 “나와 형제들의 문제”로 전체의 28.3%가 스스로를 집안의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경제적 빈곤

경제적 빈곤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시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커다란 질문을 사용하였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의 33.6%, 가정형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29.6%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이나 학업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나, 그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경제적 빈곤 하에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현재 가장 어려운 점

	빈도	퍼센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66	29.6
비행친구들의 유혹	17	7.6
주위의 차가운 시선	9	4.0
미래에 대한 두려움	75	33.6
습관화된 게으름과 무력함	24	10.8
이성문제	2	0.9
기타	26	11.7
결측값	4	1.8
합 계	2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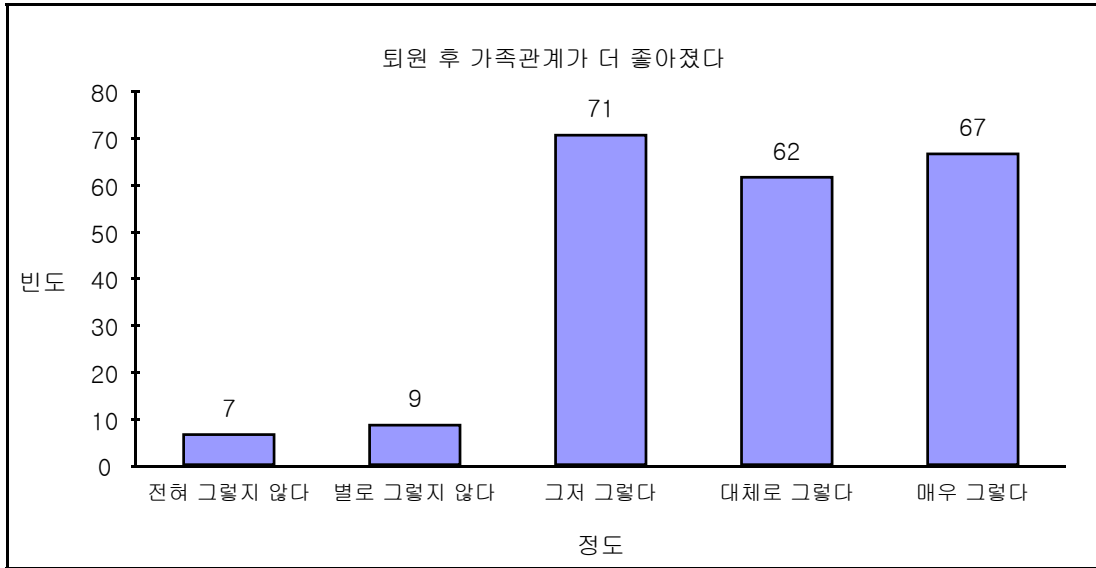
5) 가족관계 갈등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퇴원 후 가장 필요한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개선”이라고 말한 청소년이 전체의 3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의 1/3 이상이 가족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

	빈도	퍼센트(%)
주위의 따뜻한 시선	55	24.7
부모님과의 관계개선	78	35.0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28	12.6
복학 또는 구직	29	13.0
생계의 안정	27	12.1
기타	2	0.9
결측값	4	1.8
합계	223	100

청소년들에게 퇴원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는지는 물어보았다.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는 답변이 129명으로 전체의 57.8%에 해당하였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퇴원 후 가족관계가 더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그림 10】 가족관계 개선정도

6) 비행교우

비행교우 관련 문항을 통해 청소년의 퇴원 후 생활실태를 살펴본다. 먼저, “싸움 잘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한 청소년이 16명으로 전체의 7.2%에 해당하였다. 전체의 약 33.0%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보여 폭력적 성향이 있는 교우들과 퇴원 후에도 계속 가깝게 지내는 청소년이 전체의 1/3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친구가 욕을 잘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전체의 약 30.0%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 청소년의 약 5.0%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라는 문항 역시 전체의 5.3%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표 27 비행교우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	합계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	16 (7.2)	26 (11.7)	103 (46.2)	54 (24.2)	21 (9.4)	3 (1.3)	223 (100)
욕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	17 (7.6)	32 (14.3)	104 (46.6)	47 (21.1)	20 (9.0)	3 (1.3)	223 (100)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75 (33.6)	80 (35.9)	54 (24.2)	6 (2.7)	5 (2.2)	3 (1.3)	223 (100)
술이나 담배를 하는 친구	14 (6.3)	12 (5.4)	75 (33.6)	80 (35.9)	39 (17.5)	3 (1.3)	223 (100)
다른 사람을 잘 때리는 친구가 있다	76 (34.1)	75 (33.6)	56 (25.1)	9 (4.0)	3 (1.3)	4 (1.8)	223 (100)

7) 건강문제

먼저, 성병으로 인한 고민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 있음”이라고 답변한 청소년이 전체의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고민 질문에는 전체의 3.5%만이 “경험 있음”이라는 답변을 보였다. 소년원 퇴원 후에 환각제나 본드를 사용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건강문제

	빈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결측값	합계
성병으로 고민한 경험	5(2.2)	213(95.5)	4(1.8)	223(100)
임신, 출산 등 고민 경험	8(3.6)	210(94.2)	5(2.2)	223(100)
환각제 본드약물 경험	11(5.0)	208(93.3)	4(1.8)	223(100)

제 5 장

출원생 사회적응 장애(barriers)요인

1. 장애요인 문항내용 및 조사방법
2. 장애요인 항목 분석결과

제 5 장

출원생 사회적응 장애(barriers)요인

1. 장애요인 문항내용 및 조사방법

소년원 퇴원 이후 청소년들은 처음 6개월 이내에 직접적으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개별 사후지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 정보내용과 접근방법, 활용지식 등 처음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아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소년원을 나오기 전에는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할지 계획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진다. 그러나 그런 계획들이 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입원 전부터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방해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일정한 장애(barriers)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청소년의 리엔트리 전략은 구체적인 사후지도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는 것도 관건이지만,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역량과 태도, 그리고 감정적 해석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퇴원 청소년의 장애요인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수용보호시설 퇴원 후 청소년이 성공적인 사회적응 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이유는 (1)개인성향 요인, (2)가정요인, (3)지역요인, (4)프로그램 요인, (5)감독요인이 복합적으로 청소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요인을 밝히기 위해 본 장에서는 개인성향 요인을 청소년의 ①준법의식, ②즉흥성, ③자존감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가정요인은 ①보호자의 방임/감독 정도와 ②부부갈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지역요인의 경우에는 ①지역사회 내 치안여건과 ②연대의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프로그램 요인에서는 ①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정도와 ②소년원(또는 보호관찰소)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장애요인을 측정한다.

2. 장애요인 항목 분석결과

1) 개인성향 측면의 장애요인

장애요인으로써 개인성향 측면은 (1)준법성, (2)즉흥성, (3)자존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표 29 참조). 먼저 “잡히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 답을 보인 청소년이 전체의 4.5%에 해당하였다.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 법을 어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4.5%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중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 전체의 16.1%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문항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인 청소년이 전체의 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준법성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	합계
잡히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법을 어겨도 괜찮다.	113 (50.7)	51 (22.9)	42 (18.8)	8 (3.6)	2 (0.9)	7 (3.1)	223 (100)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법을 어겨야 한다	114 (51.1)	44 (19.7)	47 (21.1)	10 (4.5)	0 (0.0)	8 (3.6)	223 (100)
공중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19 (8.5)	18 (8.1)	65 (29.1)	60 (26.9)	53 (23.8)	8 (3.6)	223 (100)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19 (8.5)	8 (3.6)	46 (20.6)	64 (28.7)	78 (35.0)	8 (3.6)	223 (100)

즉흥성에 있어서는 “나는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하고 보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의 31.9%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보여 약 1/3 정도가 즉흥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항 중 “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서는 응답 청소년의 26.9%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표 30 참조).

표 30 즉흥성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	합계
나는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하고 보는 편이다.	28 (12.6)	36 (16.1)	81 (36.3)	45 (20.2)	26 (11.7)	7 (3.1)	223 (100)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쉽게 그만두는 편이다.	45 (20.2)	62 (27.8)	72 (32.3)	27 (12.1)	10 (4.5)	7 (3.1)	223 (100)
나는 모험적이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38 (17.0)	46 (20.6)	87 (39.0)	28 (12.6)	17 (7.6)	7 (3.1)	223 (100)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49 (22.0)	39 (17.5)	77 (34.5)	33 (14.8)	18 (8.1)	7 (3.1)	223 (100)
나는 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	37 (16.6)	40 (17.9)	82 (36.8)	38 (17.0)	19 (8.5)	7 (3.1)	223 (100)
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편이다.	40 (17.9)	47 (21.1)	69 (30.9)	47 (21.1)	13 (5.8)	7 (3.1)	223 (100)
나는 무엇을 시작해도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한다.	53 (23.8)	57 (25.6)	81 (36.3)	23 (10.3)	2 (0.9)	7 (3.1)	223 (100)

자존감에서는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전체의 2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문항에서 응답 청소년의 12.5%가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내가 가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10.3%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31 참조).

표 31 자존감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	합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24 (10.9)	21 (9.4)	86 (38.6)	53 (23.8)	32 (14.3)	7 (3.1)	223 (100)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24 (10.8)	29 (13.0)	96 (43.0)	45 (20.2)	20 (9.0)	7 (3.1)	223 (100)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42 (18.8)	47 (21.1)	97 (43.5)	23 (10.3)	5 (2.2)	7 (3.1)	223 (100)
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2 (32.3)	50 (22.4)	69 (30.9)	16 (7.2)	7 (3.1)	7 (3.1)	223 (100)
나는 친구들과 우정을 잘 쌓는 편이다	14 (6.3)	11 (4.9)	65 (29.1)	61 (27.4)	65 (29.1)	7 (3.1)	223 (100)

2) 가정요인 측면의 장애요인

가정요인 측면의 장애요인은 (1)방임·감독 정도, (2)부부갈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호자의 적절한 훈육부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보호자는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보인 경우가 전체의 4.0%에 해당하였다.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가 전체의 9.8%에 이르렀고,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가 전체의 9.9%에 달했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방임 상황도 전체의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표 32 부모의 방임·감독 정도

	빈도(%)				
	전혀 그렇지 않음	몇 번 있었음	매우 자주 있었음	결측값	합계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상관하지 않는다	197 (88.3)	8 (3.6)	1 (0.4)	17 (7.6)	223 (100)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185 (83.0)	19 (8.5)	3 (1.3)	16 (7.2)	223 (100)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178 (79.8)	23 (10.3)	4 (1.8)	18 (8.1)	223 (100)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주지 않는다	159 (71.3)	42 (18.8)	7 (3.1)	15 (6.7)	223 (100)
학교를 결석해도 아무 말 안한다	163 (73.1)	31 (13.9)	7 (3.1)	22 (9.9)	223 (100)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둔다	187 (83.9)	17 (7.6)	3 (1.3)	16 (7.2)	223 (100)

가정측면의 장애요인으로 보호자의 방임 이외에 부부폭력 또한 심각한 가정불화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갈등 요인에서는 “부부가 싸움을 자주 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긍정적 답변을 보인 경우가 전체의 5.3%에 해당하였다. “그저 그렇다”라는 답변까지 포함시키면, 이 경우 부부싸움 상황을 인정하는 경우가 전체의 17.4%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싸울 때 욕을 한다”는 문항에서는 응답 청소년의 7.6%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보였다. 여기에서도 “그저 그렇다”를 긍정적 답변으로 간주하면, 전체의 21.5%가 부부가 욕을 하며 싸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싸울 때 때린다”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4.4%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저 그렇다”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응답자의 16.5%가 “그렇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3 참조).

표 33 **부부갈등**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	합계
싸움을 자주하는 편	139 (62.3)	36 (16.1)	27 (12.1)	9 (4.0)	3 (1.3)	9 (4.0)	223 (100)
싸울 때 욕을 한다	136 (61.0)	27 (12.1)	31 (13.9)	16 (7.2)	4 (0.4)	8 (3.6)	223 (100)
싸울 때 때린다	145 (65.0)	33 (14.8)	27 (12.1)	5 (2.2)	5 (2.2)	8 (3.6)	223 (100)
싸울 때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148 (66.4)	33 (14.8)	22 (9.9)	8 (3.6)	4 (1.8)	8 (3.6)	223 (100)

3) 지역요인 측면의 장애요인

지역요인에서는 (1)치안여건과 (2)지역 연대의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먼저 치안여건에 서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주위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전체의 18.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의 21.0%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불량 청소년들이 자주 모인다”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18.8%가 긍정적 답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치안여건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값	합계
주위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27 (12.1)	72 (32.3)	80 (35.9)	29 (13.0)	12 (5.4)	3 (1.3)	223 (100)
어둡고 후미진 곳이 있다	33 (14.8)	60 (26.9)	80 (35.9)	40 (17.9)	7 (3.1)	3 (1.3)	223 (100)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모인다	49 (22.0)	77 (34.5)	52 (23.3)	36 (16.1)	6 (2.7)	3 (1.3)	223 (100)

다음으로, 지역 연대의식 차원의 장애요인을 살펴본다. “이웃들은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청소년의 55명이 긍정적 답변을 보여, 약 24.7%가 긍정적인 지역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낸다”라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 청소년의 32.3%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표 35 지역 연대의식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값	합계
이웃들은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	12 (5.4)	48 (21.5)	105 (47.1)	43 (19.3)	12 (5.4)	3 (1.3)	223 (100)
이웃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낸다	11 (4.9)	51 (22.9)	86 (38.6)	49 (22.0)	23 (10.3)	3 (1.3)	223 (100)

4) 프로그램 측면의 장애요인

프로그램 요인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그 세부내용을 (1)지역사회 프로그램 인식정도와 (2)소년원 및 보호관찰 교정프로그램 만족도로 나누어 검토한다. 먼저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으로는

“가출청소년 쉼터”에 대해 응답자의 53.4%가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여 퇴원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경력 비율이 높고, 퇴원 후에도 상당수가 가출하여 위기쉼터 등을 이용한 경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6 참조).

표 36 지역사회 프로그램 인식정도

	빈도(%)			
	안다	모른다	결측값	합계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76 (34.1)	141 (63.2)	6 (2.7)	223 (100)
청소년 자활 지원관	61 (27.4)	155 (69.5)	7 (3.1)	223 (100)
가출청소년 쉼터	119 (53.4)	97 (43.5)	7 (3.1)	223 (100)
그룹홈	41 (18.4)	175 (78.5)	7 (3.1)	223 (100)
성매매여성 피해 지원센터	47 (21.1)	169 (75.8)	7 (3.1)	223 (100)
청소년 상담센터	109 (48.9)	106 (47.5)	8 (3.6)	223 (100)
미혼모시설	51 (22.9)	166 (74.4)	6 (2.7)	223 (100)
청소년 성 문화센터	54 (24.2)	161 (72.2)	8 (3.6)	223 (100)
고용안전센터 및 직업훈련기관	76 (34.1)	139 (62.3)	8 (3.6)	223 (100)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센터”가 전체의 48.9%로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쉼터>청소년 상담센터>청소년공부방/고용안전센터>청소년 자활지원관>청소년 성 문화센터>미혼모시설>성매매피해지원 센터>그룹홈 순으로 응답 청소년들이 교정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교정프로그램 만족도

	만족 정도 범주							
	경험 없음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결측값	합계
폭력예방	69 (30.9)	40 (17.9)	60 (26.9)	48 (21.5)	1 (0.4)	1 (0.4)	4 (1.8)	223 (100)
성비행 예방	62 (27.8)	46 (20.6)	51 (22.9)	56 (25.1)	1 (0.4)	2 (0.9)	5 (2.2)	223 (100)
약물예방	81 (36.3)	39 (17.5)	49 (22.0)	47 (21.1)	3 (1.3)	1 (0.4)	3 (1.3)	223 (100)
교통안전	90 (40.4)	34 (15.2)	52 (23.3)	43 (19.3)	0 (0.0)	1 (0.4)	3 (1.3)	223 (100)
정보화 역기능	94 (42.2)	31 (13.9)	46 (20.6)	44 (19.7)	2 (0.9)	1 (0.4)	5 (2.2)	223 (100)
자연친화 교육	142 (63.7)	18 (8.1)	28 (12.6)	23 (10.3)	1 (0.4)	1 (0.4)	10 (4.5)	223 (100)
사회봉사활동	96 (43.0)	39 (17.5)	47 (21.1)	29 (13.0)	5 (2.2)	1 (0.4)	6 (2.7)	223 (100)
스포츠교실	142 (63.7)	24 (10.8)	29 (13.0)	17 (7.6)	1 (0.4)	2 (0.9)	8 (3.6)	223 (100)
솔로몬파크	137 (61.4)	26 (11.7)	28 (12.6)	21 (9.4)	1 (0.4)	1 (0.4)	9 (4.0)	223 (100)
댄스교실	143 (64.1)	17 (7.6)	31 (13.9)	18 (8.1)	2 (0.9)	2 (0.9)	10 (4.5)	223 (100)
등산	127 (57.0)	34 (15.2)	31 (13.9)	22 (9.9)	1 (0.4)	2 (0.9)	6 (2.7)	223 (100)
전통체험	146 (65.5)	19 (8.5)	22 (9.9)	23 (10.3)	2 (0.9)	1 (0.4)	10 (4.5)	223 (100)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특정 교정프로그램을 경험했던 청소년 대다수가 그 내용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예방이나 성비행 예방, 약물예방, 교통안전, 정보화역기능, 사회봉사활동은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 충분히 그 만족도 수치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조차 하지 않아 그 만족도 비교는 생략한다(표 37 참조).

5) 보호관찰 측면의 장애요인

보호관찰 감독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검토한다. 퇴원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보호관찰이 재범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보았다. “크게 도움 되었다”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2.5%에 해당하였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라는 답변은 전체의 32.7%에 해당하였다. 결국, 현재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보호관찰 감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85.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겠다(표 38 참조).

표 38 보호관찰 만족도

	빈도	퍼센트(%)
크게 도움되었다	117	52.5
약간 도움되었다	73	32.7
모르겠다	24	10.8
오히려 방해되었다	4	1.8
결측값	5	2.2
합 계	223	100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감독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교육 서비스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전체 청소년의 35.0%가 자격증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표 39 참조). 취업설명회 등의 행사가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격증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퇴원 청소년에게 보다 실질적인 취업훈련 및 재정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39 보호관찰 추가 필요 프로그램

	빈도	퍼센트(%)
외국어	17	7.6
컴퓨터	22	9.9
중고등교과학습	20	9.0
검정고시	29	13.0
자격증·직업훈련	78	35.0
기타	43	19.3
결측값	14	6.3
합 계	223	100

제 6 장

미국의 청소년 집중 사후지도(IAP)

1. 개념 및 출현배경
2. 핵심원리 및 기본 구성요소

제 6 장

미국의 청소년 집중 사후지도(IAP)

1. 개념 및 출현배경

수용시설에서 퇴원한 후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OJJD(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즉 “청소년 사법 및 비행 예방국”에 의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집중 사후지도(intensive aftercare)” 감독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이 시행되었다. 소년원 등의 구금 시설에서 다양한 교육, 치료,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 청소년이 다시 동일한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성인 범죄자로 전이되는 현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는 새로운 사후지도 패러다임 모델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재범증가와 소년범 구금인구 급증, 시설내에서의 범죄학습, 그로인한 국가 교정경비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1970년대 “get tough”식의 강경대응 효과성에 진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Altschuler & Armstrong, 2004).

특히, 퇴원 후 재범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고위험 청소년들에게는 독특한 욕구관련 위험요인(needs-related risk factors)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공적인 청소년 리엔트리를 위한 “집중 사후지도 프로그램(Intensive Aftercare Program: IAP)”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Fagan, Rudman, & Hartsone, 1984; Greenwood & Zimring, 1985; Meier, 1985).⁶⁾ 여기서 욕구관련 위험요인이란 퇴원 후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가족갈등, 빈곤, 불량교우와의 접촉, 학업부진,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퇴원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학습능력 부족”과 “정서적 장애,” “대인관계 유지결핍” 등을 모두 포괄하는 발달론적 문제 상황을 지칭한다 하겠다.

6) 본 장에서 다루는 미국의 IAP 내용은 이미 김지선(2004)의 “소년원 출원생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에서도 소개된 바 있으나, 당시의 원문 출처들이 대부분 1990년대 미국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최근 논문만을 중심으로 IAP 모델을 검토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주로 미국의 “청소년 통합 사후지도 센터(Juvenile Reintegration and Aftercare Center, JRAC)가 2004년에 발간한 집중청소년 사후지도 가이드(Intensive Juvenile Aftercare Reference Guide)”에서 가져온 것이다(Altschuler & Armstrong, 2004).

초기에는 시설수용 퇴원자들의 재범률을 낮춘다는 단순한 목적 하에 사후지도 내용에 있어 강력한 감독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소수의 고위험 청소년들을 상대로 통합적 사례관리(integrated case management) 방식을 IAP에 도입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사후지도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IAP는 사회적 통제이론, 긴장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의 다양한 범죄원인론을 기반으로, 미국 소년 교정 실무자들의 의견과 기존의 교정프로그램 사후지도 경험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통합 모델로써, 2001년 파일럿 프로젝트 당시 존 홉킨스 대학의 ‘정책연구소’와 캘리포니아 대학, 새크라멘토 형사사법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을 말한다.

2. 핵심원리 및 기본 구성요소

IAP 활용과 관련하여, 먼저 고위험 청소년을 상대로 퇴원 후 사후지도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 원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다섯 가지 원칙은 반드시 IAP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며, 성공적인 리엔트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가자와 관계기관이 반드시 본 기본원리에 합의해야만 한다.

첫째, IAP에서는 퇴원 전부터 청소년의 자유와 증가된 책임(increased responsibility and freedom)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및 준비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즉, 규칙적인 단체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되돌아간 청소년들에게 자유가 어떤 의미이고, 그 자유로 인해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그 내용을 명확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준비과정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유와 인권이 완벽히 보장되도록 세심하게 그 과정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모든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IAP에서는 청소년의 결정이 항상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청소년 본인이 책임져야 함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관리자나 보호관찰관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알려주는데 그 역할이 한정되고, 보상과 처벌 시스템에 의해 청소년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둘째, IAP에서는 퇴원 전부터 소년과 지역사회가 상호작용(youth-community interaction)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청소년과 특정 서비스 기관과의 상호작용이 퇴원 후에도 사회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끊임없는 참여와 관심을 계속 유도해야만 한다. 특정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면, 퇴원 전부터 그에 대한 사후지도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인식시켜,

퇴원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리엔트리 과정에서 청소년이 좌절하거나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 IAP에서는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핵심 관계인들(targeted community support systems)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 친구, 학교 선생님 등과의 긴밀한 접촉이 없으면, 성공적인 청소년 리엔트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타자들과 청소년이 맺는 상호작용은 향후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이자 핵심 자원이 된다. 이들을 IAP에서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원조해야 할 것이다.

넷째, IAP에서는 청소년이 지닌 개별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발굴(developing new resources)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퇴원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특정 서비스를 찾아내어,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IAP의 기본원칙이라 하겠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IAP는 청소년을 퇴원 후에도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조사(monitors and tests the youth)할 수 있는 단계적 제재조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의 규칙준수 여부를 잘 파악해 내기 위해 미국에서는 일정기간 전자발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약물 모발검사 등도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외출제한명령 등의 부가 의무준수 사항도 강화된 감독 방법으로 IAP에서 사용될 수 있다.

IAP 구성요소(program elements)는 크게 (1)조직체계 측면, (2) 핵심 사례관리 측면, (3) 관리정보/평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IAP의 핵심 사례관리(overarching case management) 기법이라 하겠다.

핵심 사례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프로그램 적격자 선발(classification for client selection), ②가정/지역사회 중심 개별 계획수립(case planning with a family and community perspective), ③감독/서비스 조화(serveillance/service mix), ④단계별 제재조치 강구(graduated consequences), ⑤사회 네트워크 중개 및 연결(service brokerage and linkage with social networks)로 요약된다.

3. 운영방법 및 절차

집중 사후지도 프로그램(IAP)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다. 복잡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소년원 퇴원생들에게 직업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임상 심리치료나 사회사업적 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교육기회 제공이 최우선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IAP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 입·퇴원을 수차례 경험한 복합적 욕구의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 상담자, 정신치료사, 보호관찰관, 학교교육 전문가, 취업훈련 관계자, 사회능력 향상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례관리자로서 함께 사후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개입방법 중 심리역동적(psychodynamics) 접근법과 역량/기술 발달(competency/skill development)에 초점을 두어 IAP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Altschuler & Armstrong, 1984).

심리역동적 개입방법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모델로써 심리학,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강조한 심리치료적 접근법을 말한다. 청소년이 지닌 개별욕구와 문제, 내면의 정서적 긴장유발 원인을 찾아내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

역량/기술 발달 모델은 의료적 모델에 속하는 심리역동적 개입방법과 달리 뚜렷한 이론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사회적응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취업훈련, 직업알선 등을 강조한다. 처음부터 소년원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했고, 그래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응 및 진출 기회도 다른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이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다(Altschuler & Armstrong, 2004; Altschuler & Armstrong, 1983).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취업, 교육기회 확대, 능력개발이라고 하겠다.

이에 반해 여전히 사회통제(social control) 모델 입장에서 청소년 모니터링, 감독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사회 안전” 및 “재범방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면, IAP의 우선순위를 보호관찰을 통한 집중 감독에 둘 수 있다.

IAP는 위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 서비스 영역을 매우 광범위하게 넓혀주었다. 먼저 IAP가 제시하는 분야를 소개하면, (1)여자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상습폭력 청소년 등 특별 욕구 및 특이 대상자(special needs and special populations), (2)학업상황 유지, 복학, 교육 등 학교관련(education and schooling), (3)취업훈련, 사회진출 준비반, 취업알선

(vocational training, job readiness, and placement), (4)주거 관련(living arrangement), (5)여가활동 및 레크리에이션(leisure and recreation), (6)청소년 클라이언트 중심 상담(client-centered counseling), (6)가족복지 및 치료개입(family work and intervention), (7)건강(health)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IAP는 실행단계에서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시설단계(institutional phase)로 퇴원 전에 청소년이 미리 사회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사회 관련 담당자와 미리 만나 청소년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퇴원 후 참가를 약속해 두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비록 청소년의 몸은 소년원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퇴원 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자원을 미리 활용하고 관계자들과 접촉한다는 점에서 모든 IAP 운영내용들이 외부 지역사회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라 하겠다.

둘째, 전이국면(transitional phase)이란 지역사회로 나가기 전에 그 성공여부를 테스트해 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설수용에서 갑자기 사회로 나가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 상황 앞에 놓이게 되고, 쉽게 좌절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으므로 단기 거주자 쉼터 등의 시설에서 적응기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완전한 퇴원을 앞두고 주간 시간대에 짧게 사회에서의 자유 시간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지역사회 후속조치(community follow-up)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청소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단계를 말한다. 개별육구에 상응한 사례관리가 시작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행동 및 적응상황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보호관찰 감독,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소년보호관찰의 특성 상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업무량이 성인의 그것보다 작아야 할 것이며, 다양한 단계별 제재조치 수단을 보호관찰관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 론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2010)에 따르면 소년원 신수용 인원은 2005년 6,615명, 2008년 7,352명, 2009년에는 8,840명으로 전년 대비 20.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0). 증가하는 소년원 인구로 퇴원 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따라서 증가한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도 증가한다 하겠다. 결국, 그들이 퇴원 후 얼마나 사회에 잘 적응하느냐가 모든 소년사범 및 보호체계 효과성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년 시설구금 운영은 성인의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국가 교정경비 역시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 효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에도 반드시 지속적인 사후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소년원 출원생 223명 중 전체의 73.1%가 이미 본 사건 이전에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소년원 구금 경험이 있는 경우도 전체의 26.9%로 약 1/4에 해당하여, 이미 소년원 구금 경력이 있는 전과자가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세-14세의 어린 시기부터 경찰서 훈방조치 등으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경험하다가, 다시 재범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사회내 처분을 받았던 비행청소년들이 10대 중반을 거치면서, 끝내는 반복된 비행습벽으로 소년원 구금까지 경험하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소년원에서 규칙적인 단체생활은 잘 마쳤지만, 이들이 10대 후반에 접어들어 시설을 나온 후 얼마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소극적 사후지도 전략으로는 소년 형사사범의 회전문(revolving door) 효과를 감소시킬 수 없고, 결코 효과적인 청소년 사회복귀 및 리엔트리를 성공적으로 거두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 출원생의 생활실태 및 개별육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223명의 출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년원 임시퇴원자의 생활실태는 위험요인과 비행행위 수준, 보호관찰 감독정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진 개별욕구는 주거불안, 학교 부적응, 취업욕구, 빈곤, 가족갈등, 비행교우, 건강 측면에서 폭넓게 다루어졌다. 그리고 사회복귀 관련 장애요인은 개인성향, 가정요인, 지역요인, 프로그램요인, 감독요인 중심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위험요인(risk factors)을 살펴본 결과, 퇴원 청소년들 일부가 지역사회에서 빈곤, 결손 가정, 가출경험 상황 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으로 돌아와 자유를 만끽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막상 가정과 사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때부터 다시 옛날의 불규칙한 생활로 쉽게 돌아가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퇴원 후 가출했던 청소년이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일부 청소년들이 가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을 시도한 것이다.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 1순위로 청소년(35.0%)들은 “부모님과 관계개선”이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퇴원 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갈등상황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관계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 질문에 두 번째로 많았던 답변은 “주위의 따뜻한 시선(24.7%)”으로 여전히 일부 청소년들이 비공식적 낙인 효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퇴원생은 전체의 84.8%였고, 나머지 13.4%는 친구집, 애인집,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등 불안정한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나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처우 및 지도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관찰 감독정도에서는 약 20%가 담당 보호관찰관과 월 4회, 즉 매주 한 차례이상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3회의 감독횟수도 전체의 12.6%에 해당하였고, 월 2회는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보호관찰관의 모니터링 및 감독상황은 소년전담 집중보호관찰 등을 통해 그 빈도 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청소년 서비스 제공 및 개별욕구 차원에서는 사후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었다.

실질적인 서비스 부족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퇴원 후 실제 학교에 복학한 경우는 응답 청소년 전체의 23.8%에 불과했고, 구직/취업준비(37.75)를 제외한 나머지 37.1%가 “계획 없음, 검정고시 준비, 기타” 등 불투명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 후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의 청소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거나(28.7%) 친구나 선후배의 도움(13.9%)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한 경우(1.8%)

가 아니어서 그 취업 상황이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퇴원생들 대다수는 학업에 대한 관심부족, 경제적 빈곤으로 공부를 위해 학교에 복학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원생의 현재 욕구가 복학인지, 혹은 취업인지에 따라 보다 개별화된 구체적인 목표 중심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복학에 성공한 학생이라면, 물론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겠지만, 만약 취업이 절실한 청소년이라면, 직업훈련 관련 처우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20대 초반을 최소한의 경력 기반 준비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 전체의 34.1%가 집안의 가난이라고 답했다.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라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 자립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일찍부터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사후지도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은 퇴원 청소년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 많은 청소년(33.6%)들이 퇴원 후 6개월 전후 시점에서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답했기에, 청소년들이 퇴원 후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0대 대부분을 비행행위로 보내고, 이제 20대 초반을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에 이들은 소년원 퇴원 후 그냥 쓸려가듯 시간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33.6%)”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29.6%)”이라면, 이들의 욕구(needs)에 적합한 개별 사후지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보호관찰과 지역사회 청소년복지 서비스 체계를 통해 보다 원활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보호관찰관에 의한 밀착, 집중 감독은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행동수정, 재범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엄격한 통제, 모니터링, 단계별 제재조치 수단 등은 향후 고위험 청소년에게 더욱 활발히 적용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IAP 모델도 보호관찰관을 통해 소년 전자발찌 부착, 가택구금, 모발 약물검사,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활용하여 집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사회 위기쉼터나 다양한 학업수행 지원 프로그램, 사례관리 기법 도입 및 활용 등 현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복지 자원 및 지원시스템을 지역사회 교정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활한 사회복귀 및 리엔트리의 관건은 청소년이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체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이 반드시

일반 청소년복지 자원 서비스를 가장 일선에서 활용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장애(barriers)와 욕구(needs)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소년원 퇴원 청소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각 부처통합형 사례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barriers)요인 측면을 부연설명하면, 퇴원 청소년 절반이 가출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 서비스를 알고 있을 뿐, 다른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방과 후 아카데미, 자활지원관, 미혼모시설, 고용안전센터 등)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자원 서비스가 소년원 퇴원 전 단계에서부터 리엔트리 전략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원 청소년들의 약 70%가 이미 가출한 경력이 있어 가출청소년 쉼터 등을 이미 이용했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청소년이라면,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내의 가출쉼터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례관리 형태로 청소년의 가출을 초기에 대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형 퇴원자 사례관리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Chico의 “transitional housing program”은 보호관찰소 또는 법원 등에서 위탁받은 청소년을 쉼터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관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철저한 감독 및 모니터링, 사후제재 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청소년 사회복지 전문가는 고위험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20대 초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 및 서비스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housing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청소년을 위한 거주 시설이나 침대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IAP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청소년에게 직접 제공하여, 한 달에 약 \$900불의 생활비를 청소년에게 주고, 그들이 올바른 지출, 재정관리,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회복지사는 관리하고 지원해 줄 뿐이다. 직업을 갖게 되면, 지원금의 일정금액은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청소년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역점을 둔다.

소년원 시설을 나온 후, 진정 청소년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예비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하겠다. 역기능적 가정을 위한 지원,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바뀔 수 없다면, 이제는 IAP 원리에 따라 청소년의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관리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부처를 초월하여 결국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진정 퇴원 청소년이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후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청소년복지 시스템과 사후지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통합형 사례관리 체제”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정책적 제언

2008년 소년법 개정 이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증가로 전년 대비 소년원 일일 평균 수용인원이 약 5.9% 증가하는 등 최근 소년원 내 비행청소년 구성 특성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법무부, 2010). 따라서 소년원 단체 생활을 경험한 비행청소년의 퇴원 후 사회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는 특히 더 중요한 소년 사법적 의의를 지닌다.

소년원 시설 퇴원 청소년 대다수가 확실한 장래계획 없이 바로 사회에 나가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이나 직업훈련 또는 전문지식 습득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성인기 초반부터 다른 일반 청소년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 초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소년원 퇴원자가 성인기의 빈곤층이나 사회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Mear & Travis, 2004). 퇴원 후, 만약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없게 되면 다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과 개별욕구 조사는 향후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 정책 성공을 결정짓는 기본 밑거름이 된다 하겠다.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고위험 퇴원자들에 대한 집중 사후지도 사례관리의 체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IAP 모델의 기본원리와의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사후지도는 청소년 모니터링을 책임지는 보호관찰관과 지역사회 쉼터 담당자, 청소년수련관 및 사회복지관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형 사례관리” 모델을 통해 그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후지도는 반드시 소년원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자원 및 담당 사례관리자가 보호관찰관과 함께 퇴원 전부터 시설에 들어가 청소년과 면담하여, 그들이 가진 개별욕구 및 위험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상응한 서비스를 미리 발굴해 두어야 할 것이다. 통합형 사례관리 모델을 구축하게 되면, 보다 명확하게 청소년 사회복지 사례관리자와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구분될 것이고, 이를 통해 현재의 부족한 소년보호관찰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통제 중심”형 사후지도 체제를 통제와 서비스 제공이 혼합되는 “사례관리” 형태로 바꾸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단계별 제재조치의 탄력적 운영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 형기 만료로 퇴원한 청소년들은 임의적 사후지도 규정으로 인해 특별히 제재조치를 부여할 근거는 없으나, 임시 퇴원자들에게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 단계별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개별화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방임이나 극단적인 취소처분보다는 그 중간적 제재수단이 보호관찰관의 합리적

재량으로 마련되어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 사회에서 적절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IAP처럼 청소년에게도 전자발찌, 사회봉사명령 등을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다면, 시설수용을 최소화하면서 청소년의 준수사항 유지 및 행동수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퇴원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요인과 개별육구, 장애요인들이 소년원 교육과정 및 소년보호관찰 지도감독 현장에 반영되어 효과적인 비행청소년 수용보호 처우 및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연구과제로 장기적 측면에서 소년원 퇴원자들을 추적 조사(follow-up)하여 그들의 공식적인 재범상황과 그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법무부 등 청소년 문제 대응 기관들의 파트너십 수립과 업무협조 체제수립에 대한 구체적 정책실행 수립연구가 후속연구로 계속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순석(2009). 소년원생의 교정가능성에 대한 소년보호기관 종사자의 인식 연구.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36, 13-31.
- 김지선(2004). 소년원 출원생의 사후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현수·정혜원(2010).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 21권 2호, 5-34.
- 법무부(2010).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법무연수원(2007).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201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201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신소정(2008). 소년원생의 처우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적 함의. 교정복지연구, 13, 25-34.
- 안선영·김지희(2010).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법무부 용역연구 과제.
- 이성철(2002).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이승현, 강경래(2010).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8호 처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정미(2007).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9권 1호, 63-83.
- 전여실, 기광도(2009).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혜원((2002). 일탈소녀들의 소년원 적응전략.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1호, 5-41.
- 주영신·이민창(2008). 비행청소년의 재범 후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5-31.

- 최영신(2002). 소년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 홍영오, 이법호, 정영진, 이창한, 김안식(2007).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 연계.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옥채, 이정미(2006).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교정연구, 33, 143-167.

〈국외문헌〉

- Abrams, L. S., Umbreit, M., & Gordon, A. (2006). Young offenders speak about meeting their victims: Implications for future program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9(3), 243-256.
- Abrams, L. S. (2006). Listening to juvenile offenders: Can residential treatment prevent recidivism?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3(1), 61-85.
- Abrams, L. S. (2007). From corrections to community: Youth offenders' perceptions of the challenges of transition.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4(2/3), 31-53.
- Abrams, L. S., & Aguilar, J. P. (2005). Negative trends, possible selves, and behavior change. A qualitative study of juvenile offenders in residential treatment. *Qualitative Social Work: Research and Practice*, 4, 175-196.
- Abrams, L. S., Shannon, S., & Sangalang, C. (2008). Transition services for incarcerated youth: a mixed methods evaluation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 522-535.
- Abrams, L. S., & Snyder, S. (2009). Youth offender reentry: Conceptual models for intervention and directions for future inquir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Altschuler, D. M., & Armstrong, T. L. (1983). Four models of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with serious juvenile offenders: Therapeutic orientations, educational strategies and reintegrative techniques. *Journal of Correcitve and Social Psychiatry*, 29(4), 116-130.
- Altschuler, D. M., & Armstrong, T. L. (1984). Intervening with serous juvenile

- offenders: A summary of a study on community-based programs. In *Violent Juvenile Offenders: An Anthology*, edited by R. Mathias, P. DeMuro, and R. S. Allinson. San Francisco, CA: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187–204.
- Altschuler, D. M., & Armstrong, T. L. (2002). Juvenile corrections and continuity of care in a community context – the evidence and promising directions. *Federal Probation*, 66(2), 72–77.
- Altschuler, D. M., & Armstrong, T. L. (2004). *Intensive Juvenile Aftercare Reference Guide*. Juvenile Reintegration and Aftercare Center(JRAC).
- Altschuler, D. M., & Brash, R. (2004). Adolescent and teenage offenders confront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entr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2(1), 72–87.
- Baltodano, H. M, Platt, D., & Roberts, C. W. (2005). Transition from secure care to the community: Significant issues for youth in detention. *The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56(4), 372–388.
- Bereswill, M. (2004). Inside-out: Resocialization from prison as a biographical process. A longitudinal approach to the psychodynamics of imprisonment.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8(3). 315–336.
- Borduin, C. (1999). Multisystemic treatment of criminality and violence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3), 242–249.
- Bouffard, J., & Bergseth, K. (2008). The impact of reentry services on juvenile offenders' recidivism.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6(3), 295–318.
- Brown, J. D. (2004). Managing the transition from institution to community: A Canadian parole officer perspective on the needs of newly released federal offenders. *Western Criminology Review*, 5, 97–107.
- Brown, R., Killian, E., & Evans, W. (2003). Familial functioning as a support system for adolescents' post detention suc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7(5), 529–541.

- Bullis, M., & Yovanoff, P. (2002). Those who do not return: Correlates of the work and school engagement of formerly incarcerated youth who remain the community.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0(2), 66–79.
- Bullis, M., Yovanoff, P., Mueller, G., & Havel, E. (2002). Life on the “outs.” Examination of the facility-to-community transition of incarcerated youth. *Exceptional Children*, 69, 7–22.
- Bullis, M., Yovanoff, P., & Havel, E. (2004). The importance of getting started right: Further examination of the facility-to-community transition of formerly incarcerated yout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8(2), 80–94.
- Earls, F. J., Brooks-Gunn, J., Raudenbush, S. W., & Sampson, R. J. (2002) Project on Human Development in Chicago Neighborhoods (PHDCN): Longitudinal Cohort Study, Waves 1–3, 1994–2002 [Computer file]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distributor], Ann Arbor, MI).
- Fagan, J. A., Rudman, C. J., & Hartsone, E. (1984). Intervening with violent juvenile offenders: A community reintegration model. In *Violent Juvenile Offenders: An Anthology*, edited by R. A. Mathias, P. DeMuro, & R. S. Allinson. San Francisco, CA: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pp. 207–227.
- Fields D., & Abrams, L. (2010). Gender difference in the perceived needs and barriers of youth offenders preparing for community reentry. *Child Youth Care Forum*, 39, 253–269.
- Frederick, B., & Roy, D. (2003). Recidivism among youth released from the Youth Leadership Academy to the City Challenge Intensive Aftercare Program.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Greenwood, P. W., & Zimring, F. (1985). One more chance: The pursuit of promising intervention strategies for chronic juvenile offenders. Santa Monica, CA: The RAND Corporation.
- Grisso, T., & Schwartz, R. (eds.). (2000). *Youth on trial: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juvenile jus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bermann, M., & Quinn, L. (1986). The high school re-entry myth: A follow-up

- study of juveniles released from two correctional high schools in Wisconsin.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37, 114–117.
- Mears, D. P., & Travis, J. (2004). Youth development and reentr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2(1), 3–20.
- Meier, R. (1985). *Theoretical Methods in Criminology*. Beverly Hills, CA: Sage.
- Mellow, J., & Christian, J. (2008). Transitioning offenders to the community: A content Analysis of Reentry Guid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7(4), 339–355.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Office of Justice Program. (2002). *Going home: Serious and violent offender reentry imitativ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 Osgood, D. W., Foster, E. M., Flanagan, C., & Ruth, G. R. (Eds.). (2005). *On your own without a net: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vulnerable popul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Pullman, M. D., Kerbs, J., Koroloff, N., Veach–White, E., Gaylor, R., & Sieler, D. (2006). Juvenile offenders with mental health needs: Reducing recidivism using wraparound. *Crime and Delinquency*, 52, 375–397.
- Putnins, A. L. (2003). Substance use and the prediction of young offender recidivism. *Drug and Alcohol Review*, 22, 401–408.
- Rose, D. R., & Clear, T. R. (2003). Incarceration, reentry and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in the balance. In J. Travis & M. Waul (Eds.), *Prisoners once removed: The impact of incarceration and reentry o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Ryan, J. P., & Testa, M. F. (2005). Child maltreat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Investigating the role of placement and placement instabil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 227–249.
- Smith, C., Lizotte, A., Thornberry, T., & Krohn, M. (1994). Resilient youth:

- Identifying factors that prevent high-risk youth from engaging in delinquency and drug use. In J. Hagan (Ed.), *Delinquency in the life course*. Greenwich, CT: Jail Press.
- Spencer, M. B., & Jones-Walder, C. (2004). Interventions and services offered to former juvenile offenders reentering their communities: An analysis of program effectivenes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2(1), 88-97.
- Snyder, H. N. (2004). An empirical portrait of the youth reentry population.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2(1), 39-55.
- Snyder, H. N., & Sickmund, M. (2006).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A national report*.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 Steingberg, L., Chung, H. L., & Little, M. (2004). Reentry of young offenders from the justice syste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2(1), 21-38.
- Snyder, H. N., & Sickmund, M. (2006).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A national report*.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 Todis, B., Bullis, M., Waintrup, M., Shultz, R., & Abrosio, R. (2001). Overcoming the odds: Qualitative examination of reliance among formerly incarcerated adolescents. *Exceptional Children*, 68(1), 119-139.
- Travis, J., Solomon, A. L., & Waul, M. (2001). From prison to home: The dimensions and consequences of prisoner reentry. *Research for safer communities*. U.S. Department of Labor. (2003).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announces 29 grant awards under "Young Offender Initiative: Demonstration Program."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 Wiebush, R. G., Wagner, D., McNulty, B., Wang, Y., & Le. T. (2005). Implementation and outcome evaluation of the Intensive Aftercare Program: Final report.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Wilson, A. (2007). Planning primary health-care services for South Australian young offenders: A prelimina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3, 296-303.

〈인터넷 주소〉

<http://www.cdc.gov/idu/facts/cj-transition.pdf> (최종검색 2011년 10월 10일)

http://www.moj.go.kr/HP/TSPB/spb_60/spb_602030.jsp (최종검색 2011년 10월 10일)



부록

부 록

응답자 일련번호	1-□□□ (총 7장)
자료명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평소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잘 읽고 솔직하게 각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의 답변 결과는 여러분의 신병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응답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여러분께 응답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 응답 및 절차 또는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책임자 조윤오 교수(동국대학교, 02-2260-3247)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 다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변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에는 주위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에는 불량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우리 동네의 이웃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이웃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① 결혼(재혼 포함)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모름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표해 주세요.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자매
⑥ 이모, 삼촌 등 친척 ⑦ 양아버지 ⑧ 양어머니 ⑨ 이복형제
⑩ 기타()

4. 다음 중 당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솔직하게 답해주세요).

① 흡연, 음주 ② 가출 ③ 자살시도 ④ 문신 ⑤ 성경험
⑥ 본드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경험 ⑦ 모두 해당 없음

5. 친구들과 주로 노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① 학교 운동장 ② 주변 놀이터 ③ 공원 ④ 우리 집 ⑤ 친구 집 ⑥ 게임방
⑦ 기타()

6. 아래의 질문은 여러분의 친구들(또는 형제·자매)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도움을 청하면 친구들은 나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친한 친구들은 싸움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친한 친구들은 욕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친구들을 다른 아이를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한 친구들은 술이나 담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친한 친구들을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친한 친구들은 선생님께 자주 꾸중을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형제자매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퇴원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습니까?

()원

8. 퇴원 후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가족이 살고 있는 집 ② 친척집 ③ 친구집 ④ 애인집
⑤ 민간보호시설 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⑥ 기타()

9. 퇴원 후 처음 1개월 동안 용돈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① 현재 소지한 돈으로
② 가족이나 친척에게 의지해서
③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④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⑤ 우선 법무보호공단 및 민간보호시설에 의지해서
⑥ 기타()

10. 퇴원 이후, 현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① 학교 복학 ② 구직 또는 취업준비 ③ 검정고시 준비
④ 계획 없음 ⑤ 기타()

11. 퇴원 후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주위의 따뜻한 시선 ②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
③ (선량한)친구들과의 교우관계
④ 복학 또는 구직 ⑤ 생계의 안정
⑥ 기타()

12.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학생 아님 ② 아니오-〉 설문 13번으로 가시오 ③ 예-〉 설문12_1번으로 가시오

12_1.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주로 무엇 때문입니까? 다음 중 2가지만 “○”표해 주세요.

- ① 경제적인 것들(학교 준비물, 수련활동비)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해서
② 공부하기 싫어서 ③ 성적이 나빠서
④ 선생님이 싫어서 ⑤ 친구와 사이가 나빠서
⑥ 학생들에게 차별(왕따)을 당해서 ⑦ 학교 규칙에 얽매이기 싫어서
⑧ 기타()

13. 다음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소년원 퇴원 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잘 생각해서 “○”로 표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음	몇 번 있었음	매우 자주 있었음
1)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다			
2) 학교를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			
3)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			
4)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5)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6)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14. 현재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가정형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 ② 비행친구들의 유혹
- ③ 주위의 차가운 시선
- ④ 미래에 대한 두려움
- ⑤ 습관화된 게으름과 무력감
- ⑥ 이성문제 ⑦ 기타()

15. 퇴원 후 현재 생활은 아래 내용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학교에 복학하였다
- ②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구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
- ③ 직장은 아니지만,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있다
- ④ 하는 일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내며 가끔 친구들을 만난다
- ⑤ 거의 매일 친구들과 어울리며 논다
- ⑥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 ⑦ 기타()

16.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직장은 어떻게 구하게 되었나요?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음 ② 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
- ③ 친구나 선후배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도움 ④ 소년원에서 알선
- ⑤ 보호관찰소나 직업훈련기관의 알선 ⑥ 내가 스스로 구함

17. 다음은 보호자나 주위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소년원 퇴원 후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잘 생각해서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세요.

문항	전혀 없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누가?		
		1-2회	3-4회	5-6회	7회 이상	아빠	엄마	기타
1)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맞았다								
2)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맞았다								
3) 사정없이 마구 맞았다								
4) 세계 밀침을 당했다								
5) 던진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에 맞았다								
6) 칼/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7) 욕(명칭한 것, 못된 것, 병신 등)을 들었다								
8)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어졌다								
9) “나가 죽어라”라는 말을 들었다								

18.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님에 대해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집 식구들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집 식구들은 서로 믿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집 식구들은 외출이나 운동 등을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집 식구들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아버지는 절대 복종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는 절대 복종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퇴원 후 옛날보다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9.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① 집안의 가난이다
- ② 가족 간의 무관심이다
- ③ 나의(또는 형제들의) 문제 행동이다
- ④ 가족 간에 폭행이 생기는 것이다
- ⑤ 이웃이나 친척 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 ⑥ 기타()

20. 소년원에서 받았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1. 구체적으로 당신은 소년원에 있을 때 어떠한 교육을 받았나요? 모두 고르시오.

- ①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교육 ② 컴퓨터 관련 교육
- ③ 중·고등학교의 기본교과학습 ④ 검정고시 지도
- 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 ⑥ 기타()

22. 소년원에서 받았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3. 부모님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싸움을 자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싸울 때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싸울 때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4) 싸울 때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없다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1)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성에게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내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타인에게 위협받거나 협박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타인에게 맞아서 돈/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에게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가 내 물건이나 돈을 훔쳐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② 선생님의 전문화 ③ 자율적인 생활화
④ 시설 및 환경의 개선 ⑤ 기타()

①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교육 ② 컴퓨터 관련 교육
③ 중·고등학교의 기본교과학습 ④ 검정고시 지도
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⑥ 기타()

	관련기관	알고 있나요?	이용해본 경험은?	만족했나요?
1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①안다 ②모름	①있음 ②없음	①만족 ②불만족
2	청소년 자활지원관	①안다 ②모름	①있음 ②없음	①만족 ②불만족
3	가출 청소년 쉼터	①안다 ②모름	①있음 ②없음	①만족 ②불만족
4	그룹 홈(공동생활가정)	①안다 ②모름	①있음 ②없음	①만족 ②불만족
5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①안다 ②모름	①있음 ②없음	①만족 ②불만족
6	청소년 상담센터	①안다 ②모름	①있음 ②없음	①만족 ②불만족
7	미혼모시설	①안다 ②모름	①있음 ②없음	①만족 ②불만족
8	청소년 성 문화센터	①안다 ②모름	①있음 ②없음	①만족 ②불만족
9	고용안정센터 및 직업훈련관련기관	①안다 ②모름	①있음 ②없음	①만족 ②불만족

28. 당신은 다음의 비행예방 프로그램(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 답해주세요.

프로그램명	만족					
	경험 없다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절도비행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 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3) 성 비행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4) 약물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5) 교통안전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6)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9. 당신은 다음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소년원 또는 보호관찰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명	만족도					
	경험 없다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자연친화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 사회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3) 스포츠교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솔로몬파크(법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6) 댄스교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등산	①	②	③	④	⑤	⑥
8) 전통체험	①	②	③	④	⑤	⑥

30. 퇴원 후 현재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입니까?

- ①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교육 ② 컴퓨터 관련 교육
③ 중·고등학교의 기본교과학습 ④ 검정고시 지도
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⑥ 기타()

31. 보호관찰이 당신의 재범방지나 준법 생활에 도움이 되었나요?

- ① 크게 도움이 되었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③ 모르겠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35-1로 가세요

32. 현재 보호관찰관과의 접촉 회수는 어느 정도 인가요?

- ① 월 1회 ② 월 2회 ③ 월 3회 ④ 월 4회 이상
⑤ 2개월에 한번 ⑥ 3개월에 한번 이하

33. 당신은 성병(임질, 매독, AIDS, 기타 바이러스 감염)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4. 당신은(남자일 경우, 이성친구의)임신, 출산 등의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5.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잡히지만 않으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2)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법을 어겨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3) 공중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당장 하고 싶은게 있으면 일단하고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쉽게 그만두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험적이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무엇을 시작해도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친구들과 우정을 잘 쌓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생님은 나를 항상 좋아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8) 선생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6. 여러분은 소년원 퇴원 후 아래와 같은 일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솔직히 답해주세요.

문항	전혀 없다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
1) 다른 사람들에게 욕하기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말다툼)	①	②	③	④	⑤
3) 담배 피우기	①	②	③	④	⑤
4) 술 마시기	①	②	③	④	⑤
5) 시험에서 컨닝하기	①	②	③	④	⑤
6) 무단으로 결석하기	①	②	③	④	⑤
7) 가출	①	②	③	④	⑤
8) 음란동영상 보기	①	②	③	④	⑤
9) 거리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 버리기	①	②	③	④	⑤
10)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기	①	②	③	④	⑤
11) 무단횡단이나 교통질서 위반행위	①	②	③	④	⑤
12) 일부러 학교물건 부수기	①	②	③	④	⑤
13) 일부러 남의 집 · 물건(차) 훔집내기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친구들 괴롭히거나 왕따시키기	①	②	③	④	⑤
15) 돈 주고 성관계하기	①	②	③	④	⑤
16) 돈 벌기위해 성관계하기	①	②	③	④	⑤
17) 이성친구와 성관계하기	①	②	③	④	⑤
18) 환각제나 본드 약물 사용	①	②	③	④	⑤
19) 가게에서 슬쩍 물건 훔치기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③	④	⑤
21) 타인을 심하게 때리기	①	②	③	④	⑤
22) 타인을 흉기로 해치기	①	②	③	④	⑤
23) 성폭행, 강간	①	②	③	④	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당신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의 나이는? _____세(우리나라 나이로)

3.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개월

4. 현재 본인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_____

4. 소년원에서 지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개월

5. 본 건 이전에 경찰에 체포된 횟수는? _____회

6. 최초로 경찰에 체포된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_____회

6. 보호관찰 감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개월

7. 본 건 이전에 소년원 등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이번 사건의 죄명은?

9. 이번 사건의 처분 내용은?

10.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대략 얼마?

11. 여러분이 사는 주거형태는?

- ① 단독주택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 주택
- ④ 저층(5층 이하) 아파트 ⑤ 고층(6층 이상) 아파트
- ⑥ 기타(구체적으로:)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living conditions and individual needs of youth offenders who were within about six months of release from juvenile detention center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find barriers in adjusting to community and difficult living environments of youth offenders that may influence the community reentry experience of incarcerated youth.

Structured self-reported survey examining serious delinquency was administered to a sample of 223 youth offenders in order to estimate specific living conditions, needs, and obstacles from August 2011 to September 2011.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estimate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ior arrest history, and important community reentry factors.

Result showed that youth offenders who came back to community from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s have numerous problems and complicated issues that they have to solve. The problems were associated with family support, informal labelling, housing, delinquent peer, schooling, employment and poverty. Roughly 35% of the youth in the current study reveal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ir rehabilitation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correctional setting to community is to obtain sufficient support from family members.

However, majority of youth offenders in the sample have been repeatedly arrested by police, which make them more difficult to gain enough opportunities to successfully adjust to community. Furthermore, a high proportion of offenders attempted to runaway since they returned to community from correctional institutions. More importantly, the current study have revealed that the lack of knowledge regarding community juvenile welfare service and deficiency of opportunities to move toward stable adulthood stage are crucial barriers of the released youth.

Moreover,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net-widening effect from the enhanced level of probation officers' supervision draw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onducting scientific assessment and screening process in youth probation and reentry proces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youth reentry and intensive aftercare service will be discussed.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조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 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 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윤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 · 이상훈 · 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 ·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 · 이승현 · 권수진 · 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 · 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 · 유영준 · 이명희 · 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 · 최수정 · 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 · 조아미 · 정경은 · 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 · Hernan Cuervo · 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 · 이기봉 · 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 · 길은배 · 김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 · 김성경 · 남미애 · 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본용 · 박제일 · 이은경 · 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 · 권해수

연구보고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인 쇄 2011년 10월 25일

발 행 2011년 10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917-2